2005-2025
SNART 20th Anniversary

아트뷰 2025 June & July Vol. 181

성남문화재단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ISSN 2383-8361

<아트뷰>
뉴스레터 구독하기

성남문화재단

아트뷰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www.snart.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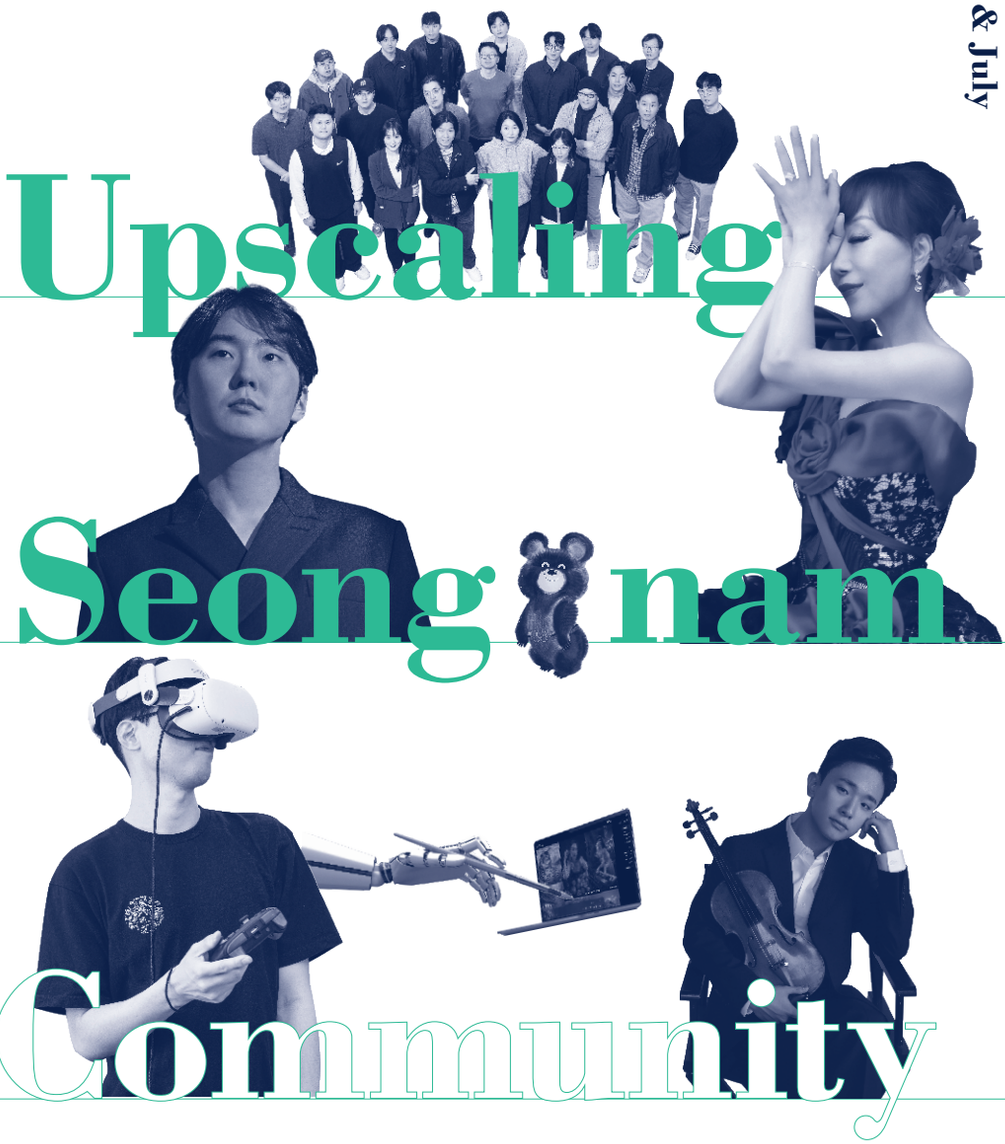
2025 June & July
Vol. 181

깊이보기
업스케일링 성남 커뮤니티

미리보기
피아니스트 조성진

인터뷰
소프라노 조수미

트렌드
창작의 동반자로 AI 활용하기



Upscaling Seongnam Community

CONTENTS

2025 June & July
Vol.181

성남문화재단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더 좋은 〈아트뷰〉를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02 인트로
성남의 문화예술 소식

SPECIAL

08 깊이보기
업스케일링 성남
커뮤니티

12 아티스트 토크 1
디렉터 + 멘토의 이야기:
남기륭, 유태양, 전석희, 홍서연

18 아티스트 토크 2
참여 작가들의 이야기:
송효근, 오상민, 윤호현, 정치구, 한광우

VIEW

30 인터뷰
윤정국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36 미리보기 1
조성진 피아노 리사이틀

40 미리보기 2
더 매직, 조수미 & 위너스

42 미리보기 3
작곡가 시리즈 <모차르트 II> +
손열음 & 고잉홈프로젝트

44 미리보기 4
2025 성남의 얼굴전 <무해한 이야기>

48 인터뷰
소프라노 조수미

CULTURE +

56 공연장 옆 영화관
영화 <문라이즈 킹덤>

60 트렌드
창작의 동반자로 AI 활용하기

64 사라진 디자인
러시아 그래픽 디자인의 역사

SEONGNAM +

74 성남의 예술가
소프트 조각가 김채윤

80 성남아트센터 개관 20주년
성남아트센터, 20년의 기록

88 성남아트센터 가이드
캘린더+맵

93 6·7월의 큐레이션
프로그램 가이드

99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안내

100 성남아트센터 공간 탐구생활
성남아트센터 '카페 콘서트'

성남문화재단 격월간 〈아트뷰〉 Bimonthly Art & Culture Magazine | 2025년 06+07월호

<아트뷰> 웹진 바로가기

2005-2025 SNART 20th Anniversary

통권 181호(비매품) 2025년 6월 5일 발행 | **등록번호** 성남, 마 00015 | **등록년월일** 2005. 9. 12 | **간별** 격월간
발행처 성남문화재단 소통전략부 | **이사장** 신상진 | **발행인** 윤정국 | **편집인** 장동환
기획·편집 남소연 nam@snart.or.kr | **교열** 이지수 |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 성남아트센터
전화 031-783-8024 | **홈페이지** www.snart.or.kr | **편집·디자인** 오니트(주) 02-337-3690 | **인쇄** 더프레스

〈아트뷰〉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게재된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성남문화재단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인쇄물은 친환경 용지(랑데뷰 내추럴, 미스틱, 그린라이트)와 친환경 콩기름 인쇄로 제작되었습니다.

성남의 문화예술 소식

청소년과 문화예술을 잇다: 성남미래교육 뮤지컬 <페치카>

성남문화재단이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문화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뮤지컬 갈라 콘서트 <페치카>를 5월 23일(금), 5월 26일(월)~30일(금)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선보였다. 성남문화재단과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성남시 미래교육팀이 함께하는 '2025 성남미래교육 사업'으로 진행된 이번 공연은 문화예술 체험을 통한 청소년들의 기초 예술교육과 문화적 감수성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뮤지컬 갈라 콘서트 <페치카>는 안중근 하얼빈 거사의 공신이었던 독립운동가 최재형의 일대기를 다룬 뮤지컬 <페치카>의 주요 장면을 엮어 선보이는 공연으로,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역사적 의미를 더했다. 또 관람 대상을 기존의 중학교 3학년에서 2~3학년으로 확대하고 공연 횟수도 12회로 늘려, 전년 대비 약 2배 많은 14,500여 명(성남시 43개 중학교 480개 학급)이 관람을 마쳤다.

5월 23일(금) 첫 공연을 관람한 분당중학교 3학년 허우찬 학생은 "이번 공연을 통해 최재형 독립운동가를 처음 알게 되어 뜻깊었다. 중학생 수준에서 이해가 쉬웠고, 미니 태극기로 3·1 만세운동을 함께 하는 관객 참여 부분도 좋았다"며 소감을 전했다.

성남문화재단 윤정국 대표이사는 "청소년기의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은 문화적 감수성과 넓은 시각을 갖게 하는 것은 물론, 삶의 가치와 행복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을 위한 깊이 있는 문화예술 체험을 제공해 성남시의 기초예술교육 활성화와 문화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Seongnam: Culture and Arts News

차세대 피아니스트를 만나다: 성남시립교향악단 6월 정기연주회

성남시립교향악단의 6월 정기연주회가 6월 26일(목)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예술총감독 금난새의 지휘, 피아니스트 유키네 쿠로키의 협연으로 라벨 피아노 협주곡과 슈베르트 교향곡 7번을 들려준다. 일본 출신의 유키네 쿠로키[1998~]는 2022년 리스트 위트레흐트 콩쿠르(구 프란츠 리스트 국제 피아노 콩쿠르)의 우승자로 국제 무대에 이름을 알린 차세대 피아니스트. 현재 세계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그의 연주를 확인할 수 있다.

6월 26일(목) 오후 7시 30분,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문의 031-729-4809

참신한 시선, 젊은 소통: 성남문화재단, 2030 실무진 '보드 Y' 운영

성남문화재단이 업무혁신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젊은 소통 기구 '보드 Y[Board Young]'를 새롭게 운영한다. 본부별 입사 7년 이하의 2030세대 실무자 12명으로 구성된 '보드 Y'는 젊은 시각과 참신한 사고를 바탕으로 조직 내 다양한 아이디어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소통 플랫폼이다.

5월 8일(목), 위촉장 수여와 함께 본격 활동을 시작한 '보드 Y'는 앞으로 1년간 정례 회의와 수시 간담회 등을 통해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과 소통하며, 재단 사업은 물론 경영 개선과 직원 복지 등 다양한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세대 간 의견 조율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해 조직문화 내 세대 차이 해소에도 적극 나선다.

성남문화재단 윤정국 대표이사는 "성남문화재단이 더 유연하고 혁신적인 조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며, "보드 Y를 통한 젊은 직원들과의 공감과 협력은 재단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것"이라 밝혔다.

성남의 문화예술 소식

성남 의병의 정신을 되새기다, 남상목 의병장 순국 117주기 추모제

성남 출신 항일 의병장이자 '경기도 선정 80명의 독립운동가'인 동천 남상목 의병장[1876~1908] 순국 117주기 추모제가 5월 30일(금) 성남시 분당구 낙생대공원 내 '성남항일의병기념탑'에서 거행되었다. (사)남상목의병장기념사업회[유족 대표 남기형·남수현] 주최, 성남문화원 진행, 성남시와 경기동부보훈지청 후원으로 진행된 추모제는 성남연극협회·성남시립국악단·벨칸토 합창단·춤자이예술단 등 예술인들의 헌정 공연과 각계 인사의 추모사로 애국의 의미를 되새겼다. 남상목 의병장은 성남시 판교동 너더리[구 광주군 낙생면 판교리] 출신으로, 1906년부터 낙생 지역에서 의병부대를 조직해 안성·용인·죽산 칠장사 등지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며 탁월한 전과를 올렸다. 그러나 귀향 도중 판교 느릿골에서 붙잡혀 구속되었고, 서대문형무소 이감 후 고초 끝에 1908년 11월 4일 향년 33세로 옥중 순국했다. 정부는 남 의병장의 공훈을 기려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으며, 유해는 대전 국립현충원 독립유공자 제1묘역에 안장되어 영면에 들었다.

그동안 지역 항일 역사 계승에 앞장서 온 성남문화원은 다양한 추모사업 및 교육활동을 추진하며 지역의 항일 역사 자산을 시민과 후대에 전하고 있다. 특히 2015년 성남시와 함께 '성남항일의병기념탑'을 건립하며 성남 의병들의 항일 정신을 기념하고, 독립운동의 의미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2025 성남문화예술제: 성남사진작가협회 회원전 & 성남미술협회전

6월 성남아트센터 갤러리808에서는 한국예총 성남지회(회장 송위혁)가 주최하는 2025 성남문화예술제의 일환으로, 지역 작가들의 창작세계를 만날 수 있는 전시들이 펼쳐진다. 먼저 6월 1일(일) 오후 3시~6월 8일(일) 오후 4시에는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성남지부 제38회 회원전이 진행된다. 성남사진작가협회 회원들이 치열한 창작의 고민 속에 빚어낸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한국미술협회 성남지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제43회 성남미술협회전은 6월 10일(화) 오전 10시~6월 18일(수) 오후 3시에 열린다. 성남미술협회 회원들의 한국화·서양화·수채화·문인화·공예 등 다채로운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무료 관람.

Seongnam: Culture and Arts News

가장 성남적인 이야기, 가장 세계적인 콘텐츠로: 2025 성남 문화정책 포럼 I

성남문화재단은 5월 26일(월) 성남아트센터 미디어홀에서 '2025 성남 문화정책 포럼 I'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성남 문화자원 활용 글로컬 콘텐츠 창작 방안'을 주제로,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창작 콘텐츠 제작의 의미와 가치를 공유하고,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 강진갑 원장이 좌장을 맡고, 문화콘텐츠 및 정책 전문가와 지역예술인, 시민들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를 펼쳤다. 첫 발제는 구문모 교수(한라대 교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가 '지역 문화자원 활용 콘텐츠 창작 국내외 사례'를 통해 성공적인 글로컬 콘텐츠 모델과 방향을 소개한 데 이어, 최명숙 소장(성남문화원 부설 성남학연구소)이 '글로컬 콘텐츠 창작을 위한 성남 지역 문화자원 현황'을 주제로 성남의 역사·문화 자산을 분석하고 콘텐츠화 가능성을 짚어 보았다. 마지막으로 김세훈 교수(숙명여대)는 '성남 지역 문화자원 활용 글로컬 콘텐츠 창작의 의미와 방향' 발제를 통해, 성남 고유의 정체성을 반영한 콘텐츠 창작의 의미와 전략 등을 제안했다.

발제 이후 종합 토론에서는 김정진 성남문화원 사무국장, 송위혁 성남예총 회장과 김성수 성남민예총 회장 등 지역 예술 관계자들과 시민들이 지역 문화예술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 과제, 지역자원의 활용 가능성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성남문화재단 윤정국 대표이사는 "이번 포럼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창의적인 콘텐츠로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와 실행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이를 통해 성남이 글로컬 문화도시이자 미래 예술 중심도시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Upscaling Seongnam

예술기술융합프로젝트 지원사업: 업스케일링 성남 커뮤니티

© 최재우

08 깊이보기
업스케일링 성남 커뮤니티

12 아티스트 토크 1
디렉터 + 멘토의 이야기:
남기륭, 유태양, 전석희, 홍서연

18 아티스트 토크 2
참여 작가들의 이야기:
송효근, 오상민, 윤호현, 정치구, 한광우

Community

업스케일링 성남 커뮤니티

예술과 기술이 만든 새로운 세상

기술과 예술이 경계를 넘나들며 끊임없이 진화하는 오늘날, 이제 기술은 삶의 방식을 재구성하는 동반자가 되었다. 과거 창작 작업에서 전문 테크니션이 구현하던 기술적 요소들은 다양한 AI 툴을 활용한 1인 제작도 가능하다. 특히 미디어아트와 인터랙티브 아트, 몰입형 콘텐츠 등 디지털 기술 기반 예술이 확산되면서, 예술가의 기술 역량은 창작의 필수 조건으로 자리 잡는 추세다. 지난 3월부터 진행된 성남문화재단의 예술기술융합프로젝트 지원사업 <업스케일링 성남 커뮤니티>는 디지털 이미지의 해상도를 높여 고품질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업스케일링Upscaling'기술처럼, 예술가들의 성장과 창작 역량을 '업스케일링' 하기 위해 탄생했다.

글 **남소연** 성남문화재단 소통전략부 과장 사진 **최재우**

판교테크노밸리로 대표되는 첨단 기업들, 풍부한 문화예술 인프라를 갖춘 성남시는 예술과 기술의 융합에 최적의 환경을 지닌 도시다. 이런 도시 특성을 반영한 융합예술의 가능성을 다각도로 모색해 온 성남문화재단이 지난 3월, 커뮤니티 기반 기술 교육 스터디 프로그램 <업스케일링 성남 커뮤니티>(이하 업스케일링 성남)를 새롭게 선보였다. 단순히 1회성 창작 지원에 그치지 않고 예술가들이 다양한 기술을 함께 배우고 교류하며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 성남을 대표하는 융합예술 예술가와 특화 콘텐츠 탄생의 토양을 다지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예술+기술 융합에 관심과 역량을 지닌 성남 예술인 대상으로 참여자 모집을 거쳐, 최종 선정된 15명이 <업스케일링 성남>의 일원이 되었다. 3월부터 5월까지 총 12회 차로 진행된 프로그램 구성을 크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6회 차 '기술 스터디'에서는 '창의적 영감의 재료'로서 다채로운 융합 기술을 습득했다. 다양한 툴과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 창의적인 표현과 기술의 확장을 알아보는 크리에이티브 코딩, 디지털 환경 속 예술적 요소를 기술적으로 최적화하고 플레이가 가능한 매체 확장 방법을 탐구하는 플레이어블 비주얼, 조명·

© 아르동

라디오 주파수와 거리 센서를 이용한 영상 작업 <작은 전쟁> (양재광)

돔형 몰입 공간을 위한 VR 콘텐츠 <비인간 시선>(구래연, 김명규, 노치욱, 송효근, 안소희, 오상민, 전석희)

미니카로 연주하는 비주얼 오케스트라 <픽셀 드리프터 실험보고서 3호>(윤호현)

비디오·사운드 등 다양한 미디어 요소를 통합하는 인터랙티브 시스템 디자인을 탐색하되, 고가의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혹은 전문가에게만 한정된 기술에서 벗어난 접근성과 활용성에 중점을 뒀다. 이후 7~12회 차 '프로젝트 창작'에서는 앞선 배움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 기획과 팀 빌딩, 프로토타이핑Prototyping이 이어졌다. 사진과 영상 등 순수예술 장르부터 이미 인터랙티브 기반 예술을 창작 중인 작가들까지, 다양한 장르와 색깔의 예술가들은 함께 토론하고, 탐색하고, 창작하며 자신만의 예술을 '업스케일링' 했다. 정기 모임 이외에도 자체적으로 스터디와 주제별 모임을 진행한 참가자들의 열정 또한 <업스케일링 성남>의 특별함이다.

새로운 방식, 새로운 창작

<업스케일링 성남>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한 창작 지원이나 기술 교육이 아니라는 점이다. 프로그램 총괄 디렉터와 기술 멘토들은 모두 자신의 장르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전문가이자 예술가들로, 이들의 창의적인 멘토링은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한 든든한 한 축이 되어 주었다. 일방적인 지식의 전달이 아닌, 참여 작가들과 동등한 예술가의 입장으로 함께 아이디어를 교류하며 소통한 멘토진의 모습은 그들이 지향하는 '창의적 배움 커뮤니티'의 레퍼런스 그 자체였다는 평이다.

12주의 배움과 교류가 마무리된 5월 21일,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에서 열린 <업스케일링 성남 오픈 스튜디오>에서는 15명의 예술가와 멘토들이 함께 만들어 낸 1차 결과물이 펼쳐졌다. 생성형 AI로 성남의 과거와 미래를 그려 내는 <Re:develop>전효성, 정치구, 추호승, 주변의 소리에 따라 예측할 수 없이 변하는 인터랙티브 탁구대 <탁구대-농담>김인열, 한광우, NFC를 활용한 평면회화와 미디어아트의 결합 <Modular-art Vo.2>이중민, 라디오 주파수와 거리 센서를 이용한 영상 작업 <작은 전쟁>양재광, 미니카로 연주하는 비주얼 오케스트라 <픽셀 드리프터 실험보고서 3호>윤호현, 다가가면 소리가 멀어지는 키네틱 사운드 설치 작품 <소리의 틈>김영일, 돔dome형 몰입 공간을 위한 VR 콘텐츠 <비인간 시선>구래연, 김명규, 노치욱, 송효근, 안소희, 오상민, 전석희이 공간 곳곳에 자리 잡았고, 작가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며 인터랙티브 아트를 체험할 수 있는 도슨트 투어가 함께 진행되었다.

<업스케일링 성남>의 첫 프로그램은 종료되었지만, 이곳에서 탄생한 예술+기술 커뮤니티와 창작의 확장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15명의 작가들이 저마다의 빛나는 영감을 담아낸 결과물들은 이후 하반기 성남문화재단이 추진하는 모든예술31 예술기술융합 창작지원 연계 운영과 더불어, 다양한 융복합 콘텐츠로 성남 곳곳에서 대중과 마주하기 위해 지속적인 개발과 확장을 모색할 계획이다.

기술을 매개로 새로운 예술이 탄생할 때, 관객 그리고 공동체와의 소통 역시 또 다른 방식으로 시작될 것이다. "기술은 인간이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이다"라는 철학자 모리스 메를로퐁티Maurice Merleau-Ponty의 말처럼, <업스케일링 성남>의 예술가들이 빚어낸 예술과 기술의 만남이 새로운 감동으로 우리의 감각을 일깨우고 도시의 표정을 바꿔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디렉터 + 멘토의 이야기: 남기륭, 유태양, 전석희, 홍서연

창작의 바다로 함께 나아가기

<업스케일링 성남 커뮤니티>의 미덕은 이 프로그램이 단순한 기술의 배움이 아닌, 서로의 창작 세계를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예술적 연대의 장이었다는 점이다. 배움과 경험, 참여와 연결 속에 모두가 '업스케일링'을 이룬 이 프로그램의 기저에는 언제나 참여 예술가들의 곁에서 함께 고민하고 공감한 네 명의 멘토들이 자리했다.

글 **남소연** 성남문화재단 소통전략부 과장 사진 **최재우**

디렉터 **아르동(남기륭)**

사회와 공동체를 작업의 주제이자 재료로 삼고, 인터랙티브 미디어를 통해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연결되고 상호작용하며 유쾌한 경험을 만들어 가는 창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술과 기술, 교육이 만나는 지점을 연구하는 교육자이기도 합니다.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멀티미디어영상과와 무대미술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창작자를 위한 테크놀로지 기반의 업스킬링Upskilling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창의적 배움 커뮤니티'라는 새로운 교육 모델을 실험하고 제안합니다. 일방향적인 강의에서 벗어나 함께 배우고, 함께 실험하고, 서로의 아이디어에 영향을 주고받는 피어러닝Peer-Learning의 과정으로, 커뮤니티의 상호 작용을 위한 인터랙티브 미디어라는 도구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창작과 교육 그리고 커뮤니티의 경계를 넘나드는 다양한 활동은 단순한 기획이나 교육을 넘어, 예술가로서 저의 작업 방식이자 실천이기도 합니다.

— <업스케일링 성남> 추진 배경

<업스케일링 성남>은 예술과 기술의 접점에서 창작자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은 작년 성남문화재단과 함께 '예술과 기술의 성숙한 융합이 가능하려면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창작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은 많지만, 단순히 프로젝트 지원금 제공이 아닌 좀 더 긴 호흡으로 함께 고민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진짜 '케어링'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이런 고민은 제가 연구해 온 '창의적 배움 커뮤니티' 개념과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었고, 이를 접목해 이번 프로그램을 설계하게 됐습니다. 창작자들이 기술을 탐색하고, 그것을 자신의 언어로 소화하면서 '업스케일링' 되는 교육이자 인큐베이팅 과정이죠.

이번 프로그램에는 15명의 멋진 성남 기반 아티스트들이 참여해 주셨고, 총 12주 과정이 너무 짧게 느껴질 만큼 풍성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그간 고민하고 발전시켜 온 결과물을 선보이기 위한 막바지 준비에 한창입니다.

— 진행 방식과 특징

매주 수요일 오후 정기 모임과 다양한 비정기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정기 모임은 크게 두 파트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기술 스터디', 두 번째는 이를 바탕으로 각자의 프로젝트를 발전시켜 가는 '프로젝트 창작'입니다. '기술 스터디'는 동시대 예술+기술 융합을 위한 핵심 기술들을 함께 다루며 창작자들의 기술적 상상력을 북돋기 위한 단계인데요, 이를 위해 모신 세 명의 훌륭한 멘토들은 단순한 기술 강사가 아니라 창작자이자 교육자, 동료로서 함께해 주셨어요.

또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한 다양한 비정기 모임들이 생겨났습니다. 자연스레 서로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배우는 흐름이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커뮤니

티가 더욱 견고해졌죠.
무엇보다도 가장 큰 특징은 '서로가 서로의 레퍼런스이자 튜터'가 된 점입니다. 저는 디렉터로서 참여자들이 각자의 작업을 나누고, 질문하고, 피드백하며, 공동체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집중했어요. 든든한 멘토들, 열려 있는 창작 공간 꿈꾸는예술터 그리고 성남문화재단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이러한 실험적인 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정적인 참여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시간이었어요.

— <업스케일링 성남> 속에서 진행 중인 작업

'업스케일링'이라는 제목처럼, 참여자들의 작업은 각자의 전문성과 경험 위에 새로운 기술을 결합해 확장 중입니다. 자신이 해 오던 작업의 맥락 안에서 기술을 소화하고 창의적으로 재구성한, 흥미로운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특히 고무적인 점은 커뮤니티에 관심을 가진 여러 주체들과의 협업인데요, 돔 형태의 미디어 몰입 공간을 위한 콘텐츠 제작, 지역사회의 문화를 인터랙티브 아트로 풀어내는 프로젝트, AI를 활용해 성남페스티벌에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융합 콘텐츠를 만드는 프로젝트, 청소년과 젊은 세대가 모바일 기기로 참여하는 공연-게임 시어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업스케일링 성남>에 기대하는 점

올해 3월, 프로그램 시작 당시 '우리는 일찍 일어난 새'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부지런히 움직인 만큼 모두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으리라 생각해요. 각자의 방식으로 성장하는 참여자들의 모습에 큰 보람을 느꼈고, 이 커뮤니티가 더 넓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기를 바랍니다.
장기적으로는 <업스케일링 성남 커뮤니티>가 성남문화재단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현재 커뮤니티의 구성원이 다음 시즌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을 넘어 지속 가능한 창작 생태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멘토 유태양

XR[eXtended Reality 1)] 분야 콘텐츠를 구현하는 미디어 개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HMD[Head Mount Display 2)] 기기와 이로 인해 발전 중인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관심이 많아, 관련 실험에 기반한 작업들을 진행 중입니다. 최근에는 프로젝션 매핑을 활용한 미디어 아트 작업부터 VRChat을 활용한 기존 IP 활용 작업까지 반경을 확장해 다양한 작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 <업스케일링 성남>에서 맡은 역할

크리에이티브 코딩 분야 멘토로 참여 중입니다. 터치디자이너[Touchdesigner]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미디어 창작, 또 그 확장에 필요한 다양한 접근법을 탐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멘토링 과정에서 중점을 둔 부분

미디어 기술이 낯선 참여자들을 고려해, 작업에 필요한 다방면의 지식들도 최대한 함께 전달하려 했어요. 또 제 멘토링 세션에서는 구현 그 자체보다 '다음에 이런 부분을 구현하고 싶다'는 동기 부여에 더 중점을 뒀죠. 그래서 SNS에 노출된 다양한 작품들 속 기술들을 아주 간단한 부분에서 만들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설계했고, 최종적으로는 그 활용을 돕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느낀 점

지금의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하고 재밌는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참여 작가님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에 저 역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죠.

— <업스케일링 성남>에 기대하는 점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행동으로 뛰어들 수 있는 불씨가 필요해요. 프로그램의 한 꼭지를 담당하는 동안, 참여자들의 만남과 이야기 속에서 작품을 향한 다양한 불씨들이 만들어질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지만 커뮤니티는 파편화되는 시대인 지금,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작품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 작업과 생각을 나눌 수 있는 보금자리가 되길 희망합니다.

1)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혼합현실(Mixed Reality) 등 현실을 확장한 형태의 작업들을 지칭
2) 머리에 착용하는 디스플레이 장치. 주로 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의 구현을 위한 디스플레이 장치로 사용된다

멘토 전석희

이머시브 시어터 연출가이자 아트엔테크 엔지니어입니다. 엔지니어 영역에서는 주로 무대 환경과 디지털 미디어의 상호작용 설계를 해 왔습니다. 관객 투표 시스템, 다채널 영상 송출, 인터랙티브 영상 등 하나의 기술에 국한되지 않고 각각의 작품에 꼭 필요한 기술을 찾을 수 있도록 고민하고 구현합니다. 연출가로서는 폐장되었던 테마파크, 새로운 터전을 찾아가는 우주선 등 다양한 세계관에서 관객이 몰입할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의 설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업스케일링 성남>에서 맡은 역할

인터랙티브 시스템 디자인 파트의 멘토 그리고 돔 환경 기반의 미디어아트 프로젝트 작업을 돕고 있습니다. 인터랙티브 시스템 디자인은 하나의 작품을 이루는 다양한 요소들과 그 사이의 연결을 다루는 분야입니다. 관객의 움직임·위치·카메라 화면·각종 큐 등이 어떻게 입력되어 처리되고, 어떤 식으로 영상이나 조명, 사운드 등의 효과로 나타나게 할지 다룹니다. 이번 커뮤니티에서는 요소 사이의 연결 방법들, OSC, Web API 등에 주력했습니다.

— 멘토링 과정에서 중점을 둔 부분

참여자들의 기술적 수준 차이를 우선 고려했습니다. 초보자에게는 부담스럽지 않고 흥미로운 주제, 숙련자에게는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고자 했어요. 특히 '시스템'이라는 추상적인 소재를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흥미롭게 전달할 수 있을지를 가장 고민했는데요, 많은 참여자들이 지루할 수 있는 이론적인 부분까지도 재미있게 반응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매주 새롭게 전해 주시는 에너지 덕분에 저도 늘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었어요.

—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느낀 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취향과 방향성으로 각자의 작업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구성원들이 모여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게 정말 귀한 기회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 <업스케일링 성남>에 기대하는 점

단발성 프로그램을 넘어선 지속적인 교류의 장, 각자의 실험과 시도를 공유하며 새로운 협업이 꽃피는 장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멘토 홍서연

미디어 아티스트이자 연출자로 VR, 실시간 그래픽, 인터랙티브 시스템 등을 활용한 디지털 예술 작업을 해 왔습니다. 저에게 기술이란 인간과 타자, 인간과 기술 사이의 관계를 다시 구성하는 감각적 장치입니다. 작업에서 시각적 완성도와 회화적 감수성을 갖추는 동시에, 관객이 능동적으로 관찰하고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해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서울독립영화제 등에서 전시 및 상영을 진행했고, 기술과 미학, 교육 간의 유기적 연결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업스케일링 성남>에서 맡은 역할

'플레이어블 비주얼Playable Visual' 분야 멘토를 맡아, 자신의 작업 세계를 디지털 환경 안에서 시각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탐색·조율하는 퍼실리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플레이어블 비주얼'은 디지털 환경 속 시각적 요소를 상호 작용 가능한 형태로 확장하는 방법을 탐구하는 분야인데요, 터치디자이너와 블렌더Blender를 기반으로 3D 스캐닝, 포인트 클라우드, 스캐닝 데이터 다루기, 리깅Rigging, 모션 캡처 데이터 활용 등 실시간 그래픽 기술을 중심으로 다양한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기술적 정답을 제시하기보다 각자의 감각과 조형 언어를 반영해 데이터와 움직임이 결합된 시각 시스템, 작업 철학에 맞는 비주얼 구조를 구성할 수 있도록 운영했어요.

— 멘토링 과정에서 중점을 둔 부분

기술이 작가의 작업 세계를 덮어 버리는 대신 그 안에 조심스럽게 들어가 작동할 수 있도록 개인의 스타일과 철학, 작업 방식에 기술이 자연스럽게 스밀 수 있는 조건을 고민하고, 답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툴의 개념 전달에 머무르지 않고 저마다의 방식으로 기술을 해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실습을 추구하고 싶었습니다.

—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느낀 점

기술적으로도 이미 높은 수준을 갖춘 예술가들이 대상이라는 점에서 부담도 있었지만, 제 경험과 자료를 공유하는 과정이라 생각하니 자연스럽게 서로의 작업 세계를 이해하는 기술 스터디가 되었습니다. 작업 공유와 토론, 실험은 실습을 넘어서 예술적 연대의 장처럼 느껴졌고, 저 역시 참여자로서 많은 감각적 자극을 받을 수 있었어요. 기술을 전하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 풀어 보는' 자리였기에 더 즐거웠고, 무엇보다도 이 커뮤니티가 보여 준 깊이와 진심이 전해지는 현장감이 인상 깊었습니다.

— <업스케일링 성남>에 기대하는 점

기술의 배움에 그치지 않고, 서로의 작업 세계를 깊이 있게 나누고 확장해 가는 연대의 과정에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작업과 사람을 중심에 둔 자생적이고 밀도 있는 예술 생태계의 좋은 예로 자리 잡으리라 생각합니다.

참여 작가들의 이야기: 송효근, 오상민, 윤호현, 정치구, 한광우

우리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업스케일링 성남>과 함께한 참여자들은 이미 각자의 장르에서 꾸준한 성취를 이뤄 가고 있는 예술가들이다. 기술과 예술이 서로의 경계를 넘어 창작의 영역을 확장하는 지금, 자신만의 언어로 새로운 융합예술을 모색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글 **남소연** 성남문화재단 소통전략부 과장 사진 **최재우**

— 어떤 장르의 창작 작업을 진행하는지

송효근 키네틱 작업을 하고 있는 송효근입니다. 움직임이라는 형식을 통해 주체와 객체의 관계를 전복하는 이야기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인간과 비인간, 올드 미디어와 뉴미디어, 인공지능 등 기술이라는 대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동시대적 질문들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오상민 저는 섬유라는 물성을 통해 인간, 생태, 공간 사이 관계를 탐구합니다. 제 작업은 '내러티브 원사Narrative Threads'라는 개념 아래, 일상 속 순간들 - 흔히 '빈 공간'이라 불리는 지점들을 관찰하고, 그 안의 서사를 실과 원사로 엮어내는 데서 출발해요. 섬유는 유동적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굉장히 견고한 구조를 지녔고,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망의 복잡성과도 닮았어요. 저는 이러한 섬유의 언어로 인간과 생태, 시간과 공간 사이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윤호현 모션그래픽 디자이너 윤호현입니다. 모션그래픽 작업을 중심으로 VFX, 그래픽 디자인, AI, 아트 디렉션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개인 작업에서는 서로 이질적인 요소들을 하나의 공간 안에 조화롭게 배치해

실험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즐깁니다.

정치구 조각과 미디어아트를 통해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개인에게서 시작된 이슈를 점점 사회로 확장하며 시각을 넓혀 가고 있죠. 2024년까지는 성남 산성동 재개발 관련 시점을 이야기로 풀어내 시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작품을 했고, 최근에는 야외에서 프로젝션 매핑을 통해 자연과 도시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한광우 다양한 매체를 바탕으로 관객과 작품이 소통하며 예술적 메시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각미술 작가입니다. 관객이 제가 고안한 사물과 규칙 속 '예술적 놀이'를 즐기는 과정에서 삶에 대한 성찰의 순간을 마주하는 작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 연작을 <사색의 운동회Stadium of Silence>라 부르고 있습니다.

— 프로그램 신청 계기 + 기대하는 점

송효근 예술+기술 프로그램들은 이전에도 존재했지만, 제가 속한 지역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은 처음이었어요.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다양한 참여자들의 전문적인 협업 역량과 더불어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교류 역시 매우 중요한데, <업스케일링 성남>은 지역 기반 구심점 형성을 통해 일회성 협업이 아닌 지속적인 상생 커뮤니티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관심이 갔어요.

오상민 기존 섬유 작업과 함께, 기술이라는 새로운 언어 아래에서 작업의 확장 가능성을 실험하고자 지원했습니다. 특히 키네틱 기술, 센서 기반 인터랙션 등과 텍스타일을 융합해 관객의 감각을 일깨우고, 집단적 공감이라는 정서적 층위를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실험을 이어가고 싶었어요. <업스케일링 성남>은 이런 융합적 시도를 촉진하고, 지역사회와 연결된 예술적 실천을 확장할 수 있는 배움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윤호현 평소 기술에 기반한 시각 작업물에 관심이 많았어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 디자인 역량과 새롭게 얻는 인사이트를 융합하고, 다양한 분야 참가자들과 소통 및 협업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치구 미디어아트 작업은 사회와 기술 분야에 밀접히 연관된 특성상 협업이 중요한 분야이기도 해요. 그동안 지역 미디어아트 작가들과 교류 기회가 없었는데 프로그램을 통해 협업·발전할 수 있다는 것, 멘토링을 통한 맞춤 상담이 가능하다는 것 모두 좋은 기회였어요.

한광우 제 작업 속 '관객과 작품 간에 벌어지는 예술적 놀이'를 더욱 다채롭게 하는 사물 - 저는 이것을 '참여를 위한 오브제'라고 부르는데요 - 을 실현할 기술 부분의 경험을 기대하며 참여하게 됐어요. 이 오브제가 시시각각 관객과 상호 작용하며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고 변형되면서 작품은 생기를 더하게 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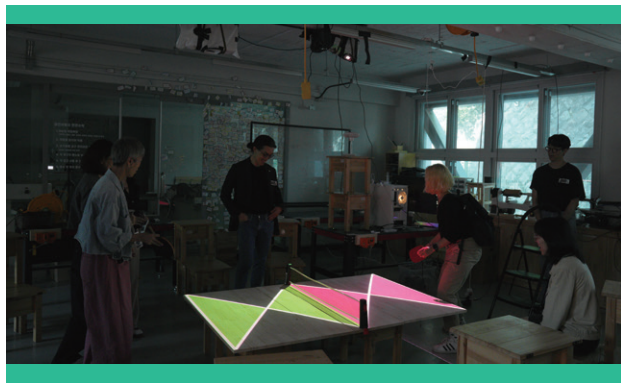
— <업스케일링 성남>을 통해 발전시키고 싶은 관심 분야

송효근 주로 물성에 기반한 작업을 해 오다 보니 터치디자이너TouchDesigner 등 다양한 비주얼 창작 역량을 키우고 싶었어요. 아두이노Arduino 같은 외부 하드웨어 연결을 통해 시각적 결과물들과 기존 작업 형식의 연결 지점을 찾고 창작 영역을 넓혀 가고자 합니다. 현재는 터치디자이너를 활용한 신규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라,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것 같아 만족스러워요.

오상민 텍스타일 기반의 인터랙티브 설치 작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관객의 움직임이나 심박수, 터치 같은 감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이에 반응하는 키네틱 텍스타일 구조물을 통해 '살아 있는 섬유'의 감각을 구현하는 거죠. 재생 낚시줄, 광섬유 등 리사이클 재료를 사용해 우리 생태의 촉각적 아름다움을 시각화하는 작업, 기후위기와 공감의 기술을 연결 짓는 데도 관심이 많습니다.

윤호현 크리에이티브 코딩과 피지컬 컴퓨팅을 활용해 인터랙션을 탐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제너레이티브 아트 작업을 전개하고 싶습니다.

정치구 인터랙티브 아트와 커뮤니티 아트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터치디자이너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의 데이터들과 상호 작용이 가능한 비주얼을 제작하고, 사람들과 대면으로 빛을 만들어 가는 작업을 진행하려 해요. 또 자연 속에서 인간에 의해 벌어지는 현상들을 현장 데이터, 리서치를 통해 영상 작업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 주변의 소리에 따라 예측할 수 없이 변하는 인터랙티브 탁구대 <탁구대-농담>(김인열, 한광우)
⇨ NFC를 활용한 평면회화와 미디어아트의 결합 <Modular-art Vo.2>(이중민)

한광우 기존의 '참여를 위한 오브제'들은 주변 사물이나 플라스틱 판재 등을 사용하다 보니 오브제 형태가 변하기도 하고, 각기 다른 시간대에 참여한 관객과의 소통에 한계가 있었어요. 때문에 시시각각 변화하는 이미지를 전시장 형태에 맞춰 투사하는 프로젝션 매핑 기술이나, 관객 움직임에 따른 시청각 결과물로 몰입을 더하는 인터랙션 기술에 관심이 갑니다.

— <업스케일링 성남> 속 교류와 작업

송효근 비정기 모임으로 아두이노 활용 스터디 워크숍을 진행했는데요, 참여자들 간 대화와 소통 속에 서로의 작업 방향성을 더욱 잘 이해하고 협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야탑유스센터 돔 스크린 전시와 <모든예술31> 공모 지원을 준비 중입니다.

오상민 센서, 인터랙션 디자인, 키네틱 등 기술 기반 작업을 꾸준히 해 오신 작가님들과 소통하고 있어요. 제 뜨개 구조를 기술과 접목해 구현하기 위한 프로토타입 실험을 진행하는 한편 작가님들, 멘토님들과 공동 프로젝트도 구상 중입니다. '기술'이라는 언어를 다양하게 해석하는 창작자들과의 대화 자체가 하나의 직조 과정처럼 느껴져서 즐거워요.

윤호현 작가님들과 다양한 주제를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서로의 분야를 이해하고 풍부한 인사이트를 얻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후반 과정인 지금은 객체 인식 기술과 터치디자이너를 활용해 가상의 악보가 실시간으로 연주되는 인터랙티브 작업을 준비 중입니다.

정치구 4월에 참여 작가님들과 판교 경기콘텐츠코리아랩에서 '현실실현' 전시회를 진행했는데요, 기술융합에 교집합을 가진 단체로서 좋은 연결과 확장의 시간이었습니다. 현재는 AI와 터치디자이너를 연결해 바닥면에 구현하는 인터랙티브 미디어 파사드 작업을 개발 중인데요, 언젠가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하며 완성해 가고 있어요.

한광우 저는 한국과 이탈리아에서 조소·미술교육·예술학 등을 공부하며 접한 경험을 바탕으로 작품을 제작합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매체적 가능성을 실험하는 작가님들과 함께하니 경험의 한계가 매번 확장되는 느낌인데요, 이 기분을 바탕으로 제 작품 <사색의 운동회> 연작을 기본 틀로 한 신작을 준비 중입니다. 그간의 개인전은 혼자 기획하고 제작했다면, 이번에는 여러 작가님들과 소통하며 작품에 새로운 관점을 더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 현재까지 참여 소감

송효근 신청 당시에는 참여자들의 협업과 역량 강화 가능성 등 걱정이 없진 않았는데, 지금은 그저 기우가 되었고 기대 이상을 경험한 느낌입니다. 특히 단순히 기술교육에 그치지 않도록 고민한 멘토진의 노력과 신선한 교육 방법이야말로, 예술+기술 교육 프로그램이 가야 할 이상적인 지향점이 아닐까 해요.

오상민 기대했던 기술학습 이상을 얻고 있습니다. 각자의 언어로 기술을 재해석하는 다른 작가들을 보며 저 역시 기술을 '재료'로 삼는 감각을 익히고 있어요. 뜨개, 텍스타일, 감각 중심의 작업과 기술이 충돌 대신 공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 가장 큰 소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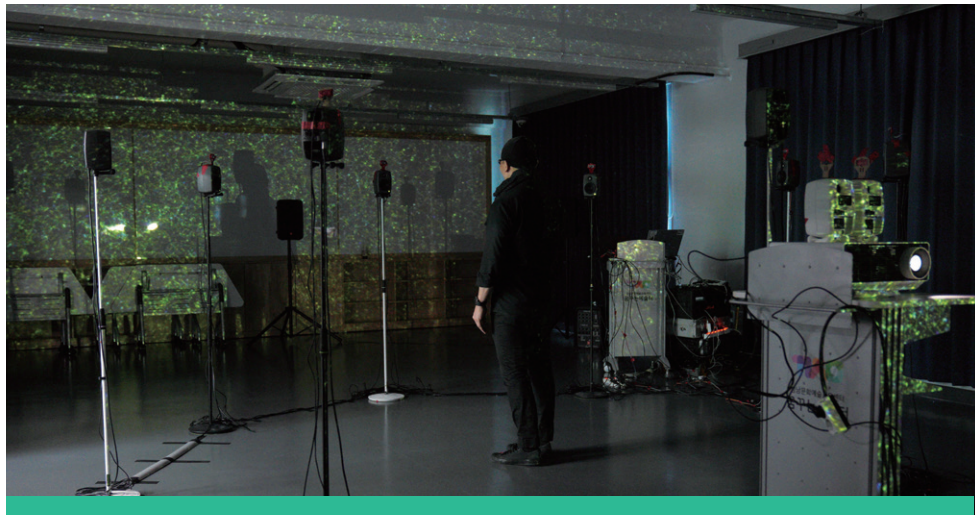
윤호현 매주 수요일이 기다려질 만큼 즐겁게 참여하고 있어요. 예술과 기술의 융합을 직접 경험하면서, 기대 이상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죠. 특히 다양한 영역의 작가님들과 직접 교류할 수 있었던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정치구 주 1회 정규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회 차 뒤엔 멘토링과 소통으로 작업을 발전시키고 있어요. 탄탄한 멘토 집단과 프로그램 진행 역시 만족스럽습니다. 미술계에서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분들이 같은 공간에서 상담을 해 주시고, 비정기 모임과 워크숍도 활발하죠.

한광우 그동안 제 아이디어 스케치북에는 실현 불가능할 것 같은 기술과 매체 기반 기획들도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업스케일링 성남> 참여를 통해 이 아이디어들도 가능성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 과정에서 신작에 대한 다채로운 영감을 얻게 된 점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가장 큰 수확은 내 주변에 이렇게 다양한 능력의 작가님들이 계시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었다는 거죠.

— 이번 과정을 통해 새롭게 흥미를 느낀 분야

송효근 터치디자이너 툴의 확장성과 활용성을 실감했어요. 또 크리에이티브 코딩, 플레이어블


다가가면 소리가 멀어지는 키네틱 사운드 설치 작품 <소리의 틈>(김영일)

비주얼처럼 각 분야에 특화된 멘토님들의 강의와 워크숍을 통해 개인 작업의 방향성을 깊이 고민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이전에 단편적으로 흩어진 여러 접점들을 찾아 서로 이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터치디자이너라는 툴이 그 교두보 역할이었다면 <업스케일링 성남>만의 독특한 창의 워크숍은 이 모든 과정을 잇는 마침표가 되어 주었습니다.

오상민 센서 기반 인터랙션 기술, OSC 활용 비주얼 이미지 만들기, API 활용 데이터 기반 작업 등에서 큰 흥미를 느꼈어요.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데이터를 모으고 집단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술을 '공감의 매개'로 활용할 수도 있겠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윤호현 세 멘토님께 배운 크리에이티브 코딩, 인터랙티브 시스템 디자인, 플레이어블 비주얼 과정 모두 흥미로웠습니다. 터치디자이너와 아두이노가 특히 인상 깊었고 OpenCV, 미디어파이프MediaPipe, 3D 스캔, 웹 API 등의 기술도 새롭고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정치구 기초에만 머물러 있던 키네틱아트가 현재의 관심 분야입니다. 서사를 가진 데이터와 유의미한 장비 작동으로 작품을 만들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로 그 결실을 맺어 가고 있습니다. 아두이노 안의 블루투스 시스템부터 작동을 위한 전력 분산까지, 작년까지는 전혀 감도 잡지 못했던 것들, SNS로만 보던 것들을 직접 만들며 발전시키고 있죠.

한광우 관객과 상호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센서의 활용법, 컴퓨터 게임 형태의 작품 제작 기술 등에 흥미가 생겼어요. 이를 통해 '사색의 운동회' 연작에서 관객에게 더욱 큰 몰입을 선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 인상적이었던 참여자가 있다면

송효근 제겐 생소한 분야였던 사운드 백그라운드 분야 작가님들입니다. 소리의 본질적인 탐구를 통한 시각화와 이를 활용한 인터랙션, 특히 사운드를 토대로 터치디자이너와 하드웨어를 모두 접목해 관계성을 표현하는 김영일 작가님의 작업이 인상적이었어요. 각 툴의 특장점을 적정 기술로 엮어 이야기를 전달하는 도전이 기억에 남네요.

오상민 기술과 데이터 기반 관점에서 조형과 서사를 풀어내는 작가님들을 꼽고 싶어요. 물성 중심으로 시작하는 제 작업과 달리, 기술의 가능성과 그에 기반한 관찰에서 출발해 스토리텔링을 한다는 지점에서 새롭게 공감할 수 있었고, 향후 교차점에서 만나는 가능성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호현 평소 스크린 기반 디지털 작업이 대부분이라 물리적인 작업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송효근 작가님의 아두이노 워크숍을 통해 '피지컬 컴퓨팅'이라는 새로운 분야의 인사이트를 얻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정치구 양재광 작가님(사진)과 한광우 작가님(조각·설치)입니다. 다른 작가님들은 미디어아트에 조금이라도 걸친 부분이 있는데 두 작가님들은 정말 접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두 분의 작업을 보면 미디어아트에서 기술이 전부는 아니고 그 안의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진과 라디오 음향을 활용한 인터랙티브 아트, 운동과 게임을 통해 공동체의 서사를 만드는 작업은 내용을 듣는 내내 성남이라는 도시에 어울린다는 느낌이었어요.

한광우 모두가 인상적이었지만, 청각 중심의 작업을 펼치고 계신 김영일 작가님의 작업이 특히 흥미로웠습니다. 시각예술작가로서 그간 귀 기울이지 않았던 부분이라 더 와 닿은 것 같아요. 또 모터를 이용해 실제 움직이는 작품을 제작하시는 송효근 작가님 작품도 좋았습니다.

— <업스케일링 성남>을 통해 새롭게 얻은 인사이트

송효근 예술가들은 개성도, 작업 방향성도 워낙 뚜렷해 협업이나 융화는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교류 속에서 의지만 있다면 충분한 시간과 대화를 통해 협업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느꼈습니다. 또 어떤 문제와 마주쳤을 때 각자의 전문성을 활용한다면 훨씬 생산성 높고 좋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오상민 기술을 단순히 도구가 아닌 '함께 반응하고 살아가는 존재'로 바라보게 됐어요. 기술도 결국 감각의 일환이며, 섬유처럼 직조 가능한 언어라는 시선이 생겼죠. 이를 통해 작업의 내

러티브와 구조 모두를 확장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에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윤호현 OpenCV, 미디어파이프, 피지컬 컴퓨팅, 3D 스캔 등 다양한 기술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또 작품 주제에 접근하는 작가님들의 방식과 사고를 통해 새로운 시각을 접하고 생각의 틀을 깰 수 있는 신선한 경험을 했어요.

정치구 사회 속 데이터들의 범위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타는 자전거의 수량, 지역별 기후변화, 자동차들의 이동 위치 등은 데이터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 이런 수치를 토대로 사회와 자연이 어떻게 유동적으로 흘러가고 엮일 수 있는지 알게 됐어요.

한광우 그간 미술관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한정된 관객을 대상으로 전시를 진행했다면, 이번 참여를 통해 기술 매체를 기반으로 공공장소 속 불특정 다수 관객에게 펼쳐 내는 예술 작품에 대한 영감과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늘 관객과 작품이 소통하는 모습을 일종의 공연예술로 만들고 싶다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 실현 아이디어도 많이 얻었어요.

— 앞으로 도전하고 싶은 기술+예술 작업

송효근 그동안의 개인 창작이 작은 작업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더 많은 이들이 친근하게 참여할 수 있는 조금 더 큰 스케일의 작업, 따뜻한 기술을 담은 프로젝트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상민 관객과 환경에 반응하는 키네틱 텍스타일 구조물 작업을 본격적으로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실시간 데이터를 감지해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빛을 발하는 텍스타일 구조물 설치 작업을 통해 인간과 생태, 기술의 새로운 감각적 공명을 만들고자 합니다.

윤호현 터치디자이너, p5.js, 시네마 4D, 블렌더 등 다양한 툴을 활용해 크리에이티브 코딩 기반의 실험적인 시각 작업물을 제작하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 피지컬 컴퓨팅 역량을 키워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는 전자기기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고 발전시키고자 해요.

정치구 축제 속에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작업을 만들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LED를 달고 특정 지역에서 색과 밀도의 변화를 주는 작품인데요, 꼭 축제 형태가 아니어도 성남의 지원사업을 통해 성남시의 그늘진 곳을 밝힐 수 있는 작품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한광우 공공장소에서 공연예술처럼 펼쳐지는 '사색의 운동회'를 꿈꿔 봅니다. 이를 위해 내외부 공간의 환경적 영향에 구속받지 않는 매체, 관객의 신체 움직임을 신속하게 읽고 디지털화하는 센서, 이를 이미지화하는 다양한 시각 매체를 활용한 작업에 도전하고 싶어요. 관객에게 놀이의 즐거움과 깊은 여운이 함께 남는 예술적 경험을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성형 AI로 성남의 과거와 미래를 그려 내는 <Re:develop> (전효성, 정치구, 추호승)

— 프로그램을 기획한 성남문화재단에 하고 싶은 말

송효근 참여자들의 성향을 이해하고 최선의 교육 환경을 조성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업스케일링 성남>이 양적·질적 성장을 모두 이룬 독보적인 커뮤니티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오상민 짧은 시간 안에도 기술과 예술, 감각과 개념이 교차하는 실험을 가능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단절되지 않고 다양한 성남 작가들의 실험을 품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는다면 좋겠어요. 지역과 연결된 공공적 상상력이 자라날 수 있도록, 커뮤니티 중심 협업 기회와 창작 지원도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윤호현 그간 막연하게 느꼈던 '예술과 기술의 융합'에 방향을 제시해 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참가자들과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또 다른 가능성을 탐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정치구 신생 프로그램의 중심을 잘 잡아 준 성남문화재단의 노력 덕분에 다른 프로그램들도 순조롭게 발전하리라는 믿음이 생겨요. <업스케일링 성남>의 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기술융합 프로그램의 확대, 여러 세부 장르 전문가들과의 만남과 협업의 기회도 기대합니다.

한광우 사업 담당자님들과 멘토님들의 열정 어린 교육 덕분에 영감과 표현의 확장 방식을 깨닫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남문화재단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무료공연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함께하는

파크콘서트

PARK CONCERT

6.14	9.6	9.27
FTISLAND LUCY	10CM 다비치	김범수 HYNN 박혜원

Sat. 7pm 중앙공원 야외공연장

주최·주관 성남문화재단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후원 깨끗한 에너지로 세상을 따뜻하게 한국지역난방공사 문의 031.783.8000

VIEW

인터뷰
윤정국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미리보기 1
조성진 피아노 리사이틀

미리보기 2
더 매직, 조수미 & 위너스

미리보기 3
작곡가 시리즈 <모차르트 II> + 손열음 & 고잉홈프로젝트

미리보기 4
2025 성남의 얼굴전 <무해한 이야기>

인터뷰
소프라노 조수미

윤정국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기술과 예술,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문화공간을 꿈꾸다

윤정국 성남문화재단 신임 대표이사가 지난 4월 2일, 제8대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동아일보 기자와 문화부장을 거쳐 충무아트센터 사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 김해문화의전당 사장과 김해문화재단 대표이사 등을 역임하며 중앙과 지역의 문화예술 현장을 두루 거친 예술경영 전문가다. 2년간 성남문화재단을 이끌어 갈 윤정국 대표이사가 새롭게 제시한 경영 철학은 예술과 기술, 사람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따뜻한 디지털 문화도시'이다. 기술이 인간을 소외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공감과 창조의 수단으로 인간의 감성과 어우러지는 도시, 시민 누구나 디지털 문화 속 예술의 창작자가 되는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한 그의 포부를 들어 보았다.

글 **남소연** 성남문화재단 소통전략부 과장 사진 **최재우**

취임 후 한 달 남짓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바쁜 업무 일정을 소화하시는 동안 현장에서 느끼신 바도 많으실 듯합니다.

6개월 같은 한 달이었습니다(웃음). 재단 업무 파악과 더불어 시와 시의회, 지역예술계 인사들을 방문하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틈틈이 직원들을 면담하고 식사도 함께 하면서 조직과 사람을 알아 가는 한편, 새로운 일감을 하나씩 풀어놓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공연장과 미술관 시설 중심의 성남아트센터를 주로 보게 되는데, 재단의 일원이 되어 바라보니 문화예술교육과 생활문화지원 등 다양한 문화사업들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어 놀랐습니다. 각 사업이 좀 더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면 상호 시너지 효과는 물론 재단의 전체 브랜드 파워도 키울 수 있겠다는 기대감도 생겼지요.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와 콘서트홀, 성남큐브미술관, 성남아트리움 등 훌륭한 인프라와 160명의 직원 모두가 재단의 장점이자 경쟁력인 만큼, 함께 조직과 사업을 혁신하고 성남시민의 행복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성남아트센터의 공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도 고민 중이시라 들었습니다.

공연이 있는 밤 시간대에만 관객이 몰리다 보

니, 좋은 시설과 환경이 온전히 활용되지 못해 안타깝더군요. 더 많은 시민이 언제든 찾아와 '예술 놀이터'로 즐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낮 공간 활성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해요. 시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확대와 성남아트센터 내 공간들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작업 역시 구상 중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여러 건물에 분산된 전시 공간들을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재구성해 관람 편의성을 높일 수 있죠.

일간지 문화부장에서 공연장과 문화재단 대표로, 또 문화예술행정 전문가와 교육자로 30년 넘게 문화예술 현장을 지켜 오시는 동안 항상 마음에 두신 신념이 있다면 무엇이었는지요?

'문화예술이 우리 삶을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준다'는 믿음입니다. 여러 문화기관을 거치며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믿음 덕분이었죠. 사회적 창의創意와 공동체적 연대連帶의 원천으로서 문화예술 생태계를 돌보는 일은 분명 보람 있고 가슴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성남에서도 이런 신념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취임 후 '예술과 첨단기술이 조화롭게 융합된 따뜻한 디지털 문화도시 만들기'에 주력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대표님이 구상하신 '따뜻한 디지털 문화도시'는 어떤 모습일까요?

성남시는 국내 도시 가운데서도 가장 미래에 근접한 도시입니다. 성남에 자리한 IT기업과 게임회사 등 첨단기술 기업들은 바로 성남시가 나아갈 '디지털 문화도시'의 방향을 보여주는 생생한 근거들이죠. 다만 삭막하고 딱딱한 기술도시가 아니라 기술로 인간이 소외되지 않는 '인간 중심'의 도시, 인간적 감성이 살아 있는 '따뜻한 디지털 문화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달리 표현하면 '미래예술의 중심 도시'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제 임기 중 목표는 이런 도시를 실현하거나 적어도 그 기반을 만들어 놓는 일입니다.

재단 운영 비전으로 △디지털 문화 중심 혁신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예술 향유 확대 △시민참여 기반 예술생태계 조성 △경영기반 고도화 및 신뢰경영 강화라는 4대 전략목표와 이를 위한 14대 과제를 제시하셨습니다. 전략목표 중 '디지털 문화 중심 혁신'은 기술+예술 융합에 기반한 창작콘텐츠 활성화와 육성 지원을 포함하는데요. 일찍이 AI 예술의 중요성, 특히 공공 부문의 융합예술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신 만큼, 이 부분을 자세히 여쭤 보고 싶습니다.

앞에서 말한 '따뜻한 디지털 문화도시' '미래예술 중심 도시'와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AI 기술은 전문예술가와 생활예술가 모두에게 중요한 도구입니다. 생활예술가는 전문교육을 받지 않고도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나 영상, 음악을 만들 수 있고, 전문예술가는 자신의 장르와 영역, 미학 세계를 확장·심화시키는 도구로 활용하죠. 그리고 어느 쪽이든 AI가 주목받을수록 역설적으로 인간다움이 대두하고 있어요.

AI 예술의 대중화를 위한 창작 지원과 프로젝트 펀딩 등 다양한 진흥 사업을 펼쳐 성남이 미래예술의 중심 도시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디지털 도시가 얼마나 인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는지, 성남에서 그 모델을 만들어 확산시키고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의 순수예술과 첨단예술의 균형을 어떻게 만들어 갈 계획이신가요?

전통적인 의미의 기초예술(순수예술) 진흥은 지속하되 새로운 융복합 예술을 접목하고, 디지털 문화예술 지원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발 먼저 선도하는 역할을 성남문화재단이 해내고 싶습니다.

김해문화재단 대표이사 재직 당시 창작 오페라 <허황후>로 지역 역사를 담아낸 브랜드 콘텐츠 제작에 도전하셨습니다.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공연콘텐츠 창제작은 지역문화 특성을 찾아 문화자치로 가는 첫걸음"이라 밝히신 바 있는데요, 성남에서도 향토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콘텐츠를 염두에 두고 계시는지요?

성남은 역사적으로 시대의 선각자들을 많이 배출한 도시입니다. 고려 후기의 성리학자 둔촌 이집1327~1387, 조선 후기의 여류 성리학자 겸 시인 강정일당1772~1832, 구한말 의병장 남상목1876~1908, '코끼리 아저씨' '산바람 강바람' 등 수많은 동요를 남긴 작곡가 박태현1907~1993 등을 꼽을 수 있지요. 이러한 인물들을 소재로 지역 정체성을 살리는 창작공연 콘텐츠를 제작한다면, 지역예술인들이 그 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지역에서 만들어진 우수한 창작콘텐츠는 지역예술인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문화 공공재로, 또 청소년들의 지역 정체성과 역사 교육에도 뜻깊게 활용될 수 있을 겁니다.

다양한 소재들 중 실제 공연화를 위한 콘텐츠 선정 기준이 있는지요?

지역과의 소통을 통해 성남의 역사문화자원을 기본부터 세밀하게 탐색하고 발굴하는 과정을 거칠 생각입니다. 여러 전문가, 또 지역예술인들과 함께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글로컬 콘텐츠 창작 방향을 살펴보고, 지역의 관심과 참여 속에 콘텐츠 창작 기준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콘텐츠의 성공에 어떤 요소들이 필요할까요?

우선, 작품 수준입니다. 관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높은 수준과 완성도를 갖춰야 공연 무대에 자주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중앙의 뛰어난 창작인력이 기획 단계부터 지역예술가들과 협업해 수준 높은 작품을 만들어야 해요. 다음은 지역성입니다. 지역예술인들이 해당 작품을 자기 분신처럼 생각해 적극 제작에 참여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지역 정치와 외부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작품이 살아남으려면 지역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하니까요.

성남시의 대표축제 '성남페스티벌'이 올해 세 번째 만남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현재까지 성공리에 진행 중인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을 2016년에 출범시킨 주역이신데요, 축제 성격과 규모는 다를지라도 '축제'라는 이벤트의 지향점에서는 공통분모가 있을 듯합니다.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 성남의 축제를 어떻게 만들어 가고 싶으신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첨단기술과 예술이 만나는 성남페스티벌은 제가 임기 중 목표로 내세운 '따뜻한 디지털 문화도시'의 미래를 보여 드릴 기회이기도 합니다. 저는 성남페스티벌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융복합예술의 감성과 환상'을 맛볼 수 있는 축제로 만들 생각인데요. 세계적인 뉴미디어 아티스트인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이진준 교수와 협업할 예정입니다. 오는 9월, 그가 제작하는 융복합예술의 메인 콘텐츠가 성남페스티벌 개막식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웃음).

장기적으로는 성남페스티벌이 매년 3월 미국 오스틴에서 열리는 SXSW South by Southwest와 같은 축제를 지향해야 한다고 봅니다. 1987년 음악 페스티벌로 시작한 SXSW는 이제는 영화와 인터랙티브 미디어, 신기술까지 아우르는 종합문화축제로 성장했어요. 올해에도 스타트업과 미래학자, 글로벌 아티스트, 기술 전문가 등 각계의 인사들이 경계를 허물고 창의적 협업을 이뤄 냈습니다. 성남페스티벌도 '아시아의 SXSW'로 여러 분야를 유기적으로 아우르며 정체성을 다져 나갈 생각입니다.

SXSW를 롤모델로 삼으신 가장 큰 요소는 무엇인가요?

'다양성'이죠. SXSW 현장은 음악과 영화, 미디어뿐 아니라 새로운 기술이 다채롭게 펼쳐진다는 점에서 벤치마킹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아직 초창기 단계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성남페스티벌만의 새로운 정체성이 만들어지고, 예술과 첨단기술의 다양한 담론이 탄생하고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취임 이후 지역 문화예술계와의 소통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지역예술(인)을 위한 재단의 역할과 더불어, 앞으로 어떤 상생의 유대를 이어 가실지 여쭤 봅니다.

지역예술가들은 지역 문화예술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이분들의 원활한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일이 재단의 역할이지요. 장기적으로는 지원금 배분에만 머물지 않고 지역예술인들이 저마다의 예술 애호가층을 형성해 자생적인 창작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과 소통하고 예술세계를 알릴 수 있는 기반 구축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동안 재단이 진행한 예술인 역량강화지원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최근 인상 깊게 읽으신 책이 있으신지요?

AI와 예술에 대한 예술가 8명의 고찰을 담아낸 『AI는 어떻게 예술이 되는가』를 추천하고 싶네요. AI를 통해 미래예술을 탐구하는 기회를 접할 수 있어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지난해 성남문화재단 창립 20주년에 이어, 2025년은 성남아트센터의 개관 20주년입니다. 성년이 된 성남아트센터가 만들어 갈 역할, 그 과정 속에서 이루시고 싶은 바람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먼저 성남아트센터 개관 2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를 맞아 그간 헌신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성남아트센터는 지난 20년간 예술로 시민과 함께하며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플랫폼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제 성년을 맞은 성남아트센터와 성남문화재단은 지역을 넘어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글로컬 문화공간'으로 한 단계 도약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역 문화자원을 창의적 기획으로 재해석하고, 세계와 연결되는 글로컬 콘텐츠를 발굴·확산함으로써, 성남만의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문화예술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성남아트센터가 예술 창작의 플랫폼이자 문화 교류의 장이 되고, 지역예술가와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예술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과 함께할 시민 그리고 관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20주년을 맞아 성숙한 성년의 모습으로 공연장과 미술관, 또 다양한 문화사업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뵙고자 합니다. 문화예술로 충만한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 R E V I E W

조성진 피아노 리사이틀

젊은 거장의 미래를 엿보다

어느 분야든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차분하게 돌아보고 그것을 전진의 자양분으로 삼는다. 거기에 멘토로 생각하는 인물들의 이야기나 경험 등을 얹을 수 있다면 금상첨화이겠다. 조성진의 행보가 그를 사랑하는 팬들 모두에게 흐뭇함과 든든함을 동시에 전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글 **김주영** 피아니스트, 대원문화재단 전문위원

© Ben Wolf

Seong-Jin Cho

자신의 음악에 귀 기울일 클래식 애호가들을 늘리는 일에도 분주히 임해야 하지만, 지금껏 긴 호흡으로 조성진의 피아니즘에 공감을 표하고 함께 걸어온 이들에게 흥미로운 방법으로 미래의 모습을 제시해야 할 의무도 있는 것이다. 세계 정상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피아니스트이기에 이 책임이 더욱 막중해지는 것도 사실인데, 6월 15일 성남아트센터 리사이틀 프로그램에는 신선한 느낌과 아울러 앞으로의 스타일과 추구해 나갈 음악 세계에 대한 힌트가 살짝 곁들여져 있다.

리스트부터 브람스까지,
조성진만의 피아니즘을 만나다

첫 곡인 리스트의 <에스테장의 분수 *Les jeux d'eaux à la Villa d'Este*> 는 지금껏 조성진이 연구해 왔던 프랑스 인상주의 피아니즘에 대한 원천적 고찰이다. 인생 후반기의 리스트는 피아노로 만들어지는 '음의 덩어리'를 포함한 새로운 음향의 창조에 관심을 기울였는데, 이탈리아의 명소인 에스테장의 아름다운 분수들과 물의 흐름을 오묘한 아르페지오를 통해 구현해 낸 리스트의 이 걸작은 가히 드뷔시와 라벨을 수십 년 앞선 결과물이라 할 만하다.

베토벤의 유니크한 피아노 소나타 '전원'은 고전파로 향한 조성진의 애정을 조심스레 드러낸 선곡이라 보인다. 중기로 막 들어서던 베토벤의 서정적 면모를 엿볼 수 있는 열다섯 번째 소나타는 네 개의 악장 모두에 이전까지 보이지 않았던 작곡가의 새로운 리듬적 시도와 대위법 등이 엿보이는 곡으로, 연주자마다 고유의 시각을 오롯이 나타낼 수 있는 작품이다. 이어지는 버르토크의 모음곡 '야외에서'는 유럽의 각처에서 수집한 민요의 본질들을 독특한 어법으로 끌어낸 역작이다. 시마노프스키 등을 통해 경험했던 바, 조성진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어지러운 가치관과 혼돈의 시대에 만들어진 작품의 갈등적 요소를 일목요연하게 풀어내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고유의 텍스트가 간직하고 있는 충동과 그 불규칙한 폭발, 민요적 요소의 그로테스크한 변형에 이르기까지 조성진이 이 난곡을 통해 나타낼 수 있는 매력은 참으로 여러 가지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조성진이 선택한 브람스의 작품을 보는 순간, 수년 전 풍성한 양감과 피아니스틱한 쾌감을 멋지게 혼합했던 크리스티안 지메르만의 호연이 떠올랐다. 후반부 조성진이 무대에 올릴 브람스의 소나타 3번은 야심만만했던 젊은 브람스의 호기가 여과 없이 담겨 있는 대곡으로, 이보다 직전 발표한 두 곡의 피아노 소나타와 비교해 월등한 성장과 균형미를 이뤄 낸 곡이다. 간간이 명민하면서도 깊은 사색이 있는 브람스의 사운드를 구사해 보였던 조성진인 만큼 하이라이트를 이룰 후반부 무대에 대한 기대감은 남다르다. 피아노 한 대로 그려 낼 청년 브람스의 오케스트레이션을 기대해도 좋을 듯하다.

조성진의 피아니즘은 과거의 고찰을 바탕으로 미래의 음악을 설계해 나간다

조성진 피아노 리사이틀
일시 6월 15일(일) 오후 3시
장소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문의 031-783-8000

© Deutsche Grammophon

© Ben Wolf

P R E V I E W

더 매직, 조수미 & 위너스

찬란한 영광과 미래의 가능성을 잇다

우리나라 성악계의 한 세대의 상징과도 같은 소프라노 조수미가 오는 6월 성남을 찾는다. 그러나 이번 무대는 조수미 혼자가 아니다. 조수미가 직접 발굴한 젊은 성악가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더 매직, 조수미 & 위너스>는 단순한 갈라 콘서트를 넘어 다음 세대를 조명하겠다는 그의 음악적 선언이기도 하다.

글 **허서현** 월간 <객석> 기자

공연에 함께할 이들은 지난해 조수미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시작한 '제1회 조수미 국제 성악 콩쿠르'에서 두각을 드러낸 신예들이다. "성악가에게 이상적인 콩쿠르란 무엇인지 고민했고, 경쟁을 넘어 음악가를 돕고 문화적 교류를 증진할 행사로 만들고 싶었다"는 것이 콩쿠르에 대한 조수미의 바람이었다. 이를 위해 심사위원에 이탈리아 라 스칼라 극장과 미국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캐스팅 책임자 등이 자리하기도 했다.

콩쿠르는 프랑스의 아름다운 성 '샤토 드 라 페르테 엥보'에서 열렸다. 첫해임에도 전 세계 47개국, 500여 명의 성악가들이 지원했고 뛰어난 실력을 갖춘 수상자들을 배출했다. "단순히 트로피를 손에 들려 주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그의 말대로, 조수미는 수상자들을 위한 무대를 마련하는 데에 책임을 다하고 있다. 성남아트센터의 무대 역시 그 약속의 일환일 것. 공연은 로시니·오펜바흐·벨리니·도니체티·푸치니 등 다수의 오페라 명곡으로 꾸려졌다. 지휘자 최영선이 이끄는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가 함께한다. 따뜻한 음색과 뛰어난 연기력으로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한 중국 출신 바리톤 지하오 리, 섬세한 감성으로 2위에 오른 루마니아 출신 테너 주르주 비르반이 참여한다. 3위를 차지한 한국의 테너 이기업 그리고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은 프랑스 출신 소프라노 줄리엣 타키노도 함께다. 조수미도 벨리니 <청교도> <노르마> 등의 아리아로 무대에 오를 예정.

이기업

주르주 비르반

줄리엣 타키노

지하오 리

공연의 마지막은 출연진 모두가 함께 부르는 번스타인의 오페레타 <캔디드> 중 '우리의 정원을 가꿔요'가 장식한다. 작품에는 삶의 굽이굽이마다 어려움을 겪는 주인공이 등장한다. 흔한 비관도, 섣부른 낙관도 하지 않는 주인공은 그저 주어진 삶을 가치 있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 살아 나가겠다며 노래한다. 콩쿠르 2회째인 내년은 조수미가 데뷔 4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어쩌면 그는 무대 위 자신의 찬란했던 삶을 돌아보는 방법으로, 자신의 정원에서 일궈 나갈 귀중한 생명들을 품었던 것일까? 정상의 자리에 오른 예술가가 펼칠 이 음악의 장은 그래서 더욱 소중하다.

한 거장이 만드는 아름다운 노래를 넘어 성악이라는 장르 속에서 이어질 유산과 미래의 가능성을 모두 만나 볼 수 있는 무대. 그 울림 속에서 예술의 다음 세대를 향한 진심을 마주해 보길 바란다.

더 매직, 조수미 & 위너스
일시 6월 21일(토) 오후 5시
장소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문의 031-783-8000

P R E V I E W

작곡가 시리즈 <모차르트 II> + 손열음 & 고잉홈프로젝트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는 아름다움

시대를 초월해 사랑받는 클래식의 영원한 고전 모차르트. 그리고 올해 탄생 150주년을 맞은 라벨. 100년이라는 시간차를 두고 활동한 모차르트와 라벨은 완전히 다른 소리를 구현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음악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의 작품을 조명한 연주가 6월과 7월, 성남아트리움에서 오케스트라와 실내악으로 선보인다.

글 **정소연** 월간 <스트라드> 수석기자

6월 28일 작곡가 시리즈 무대에 서는 바이올리니스트 김동현

청춘과 절정, 두 시기의 모차르트를 만나다

모차르트의 대표작 두 곡, 바이올린 협주곡 5번 '터키풍'과 교향곡 41번 '주피터'가 오는 6월 28일 성남아트리움 '작곡가 시리즈' 모차르트 두 번째 무대에서 연주된다. 지휘자 최희준이 경기필하모닉을 이끌고 바이올리니스트 김동현이 협연자로 나선다.

'터키풍'은 모차르트가 19세에 작곡한 마지막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선율 감각과 프레이징, 음색 컨트롤 등 음악성과 기본기를 종합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작품이다. 특히 1악장의 느린 아다지오 도입과 3악장에 삽입된 이국적인 '터키풍' 에피소드는 모차르트의 형식 실험 정신을 보여 준다. 김동현은 이 곡의 유쾌함과 세련된 고전적 아름다움을 섬세하게 풀어낼 예정이다.

'주피터'는 1788년 모차르트가 생의 말미에 작곡한 마지막 교향곡으로 후원 없이 순수한 창작 의지로 완성된 작품이다. 특히 4악장은 다섯 개의 주제가 퍼즐처럼 결합되는 인상적인 구조를 통해 고전주의 형식미의 정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이 곡은 모차르트가 역경 속에서도 음악에 담은 희망과 내면의 자유를 강렬하게 드러낸다.

이번 공연은 모차르트의 청년기와 말년의 작품을 나란히 배치함으로써 그의 음악이 지닌 자유로움과 통찰이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체험하는 특별한 무대가 될 것이다.

시대를 가로지르는 섬세한 여정, 고잉홈프로젝트의 라벨

피아니스트 손열음을 중심으로 해외 유수 오케스트라에서 활동 중인 연주자들이 모인 '고잉홈프로젝트'는 7월 6일 모리스 라벨의 대표 실내악 네 곡을 연주한다. 서주와 알레그로[1905], 현악 4중주 F장조[1903], 피아노 삼중주[1914], 바이올린 소나타 2번[1927]까지 약 25년에 걸친 라벨의 작곡 여정을 따라가는 구성으로 인상주의에서 신고전주의에 이르는 라벨 음악의 흐름을 하나의 서사로 엮는다.

특히 이번 무대는 라벨 특유의 섬세한 음향 언어가 오케스트라 단원 출신 연주자들의 앙상블 감각과 만나 어떻게 구현될지 기대된다. 고잉홈프로젝트의 멤버들은 실내악적 감수성과 유연한 호흡을 갖춘 연주자들로 라벨 음악의 색채와 프레이징, 구조적 밀도를 치밀하게 구현할 수 있는 이상적인 조합이다.

각 작품은 라벨이 마주한 시대적 전환점을 반영한다. 초기 현악 4중주의 형식 실험, 서주와 알레그로의 인상주의적 색채, 전쟁 직전 피아노 삼중주의 내면적 긴장 그리고 후기 바이올린 소나타 2번에 담긴 재즈와 신고전주의의 교차까지, 그의 음악은 한 시대의 감각을 정제된 언어로 기록한다.

이번 공연은 라벨의 예술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온 연주자들의 감각과 경험이 만나는 자리다. 한 작곡가의 미학과 한 세대 연주자들의 현재가 교차하는 이 무대야말로, 탄생 150주년을 맞이하는 라벨이라는 작곡가의 의미를 오늘의 청중에게 다시 일깨우는 자리가 될 것이다.

손열음

스테판 루세브

김두민

조성현

작곡가 시리즈 <모차르트 II> + 손열음 & 고잉홈프로젝트

일시 6월 28일(토) 오후 5시 / 7월 6일(일) 오후 3시
장소 성남아트리움 대극장
문의 031-783-8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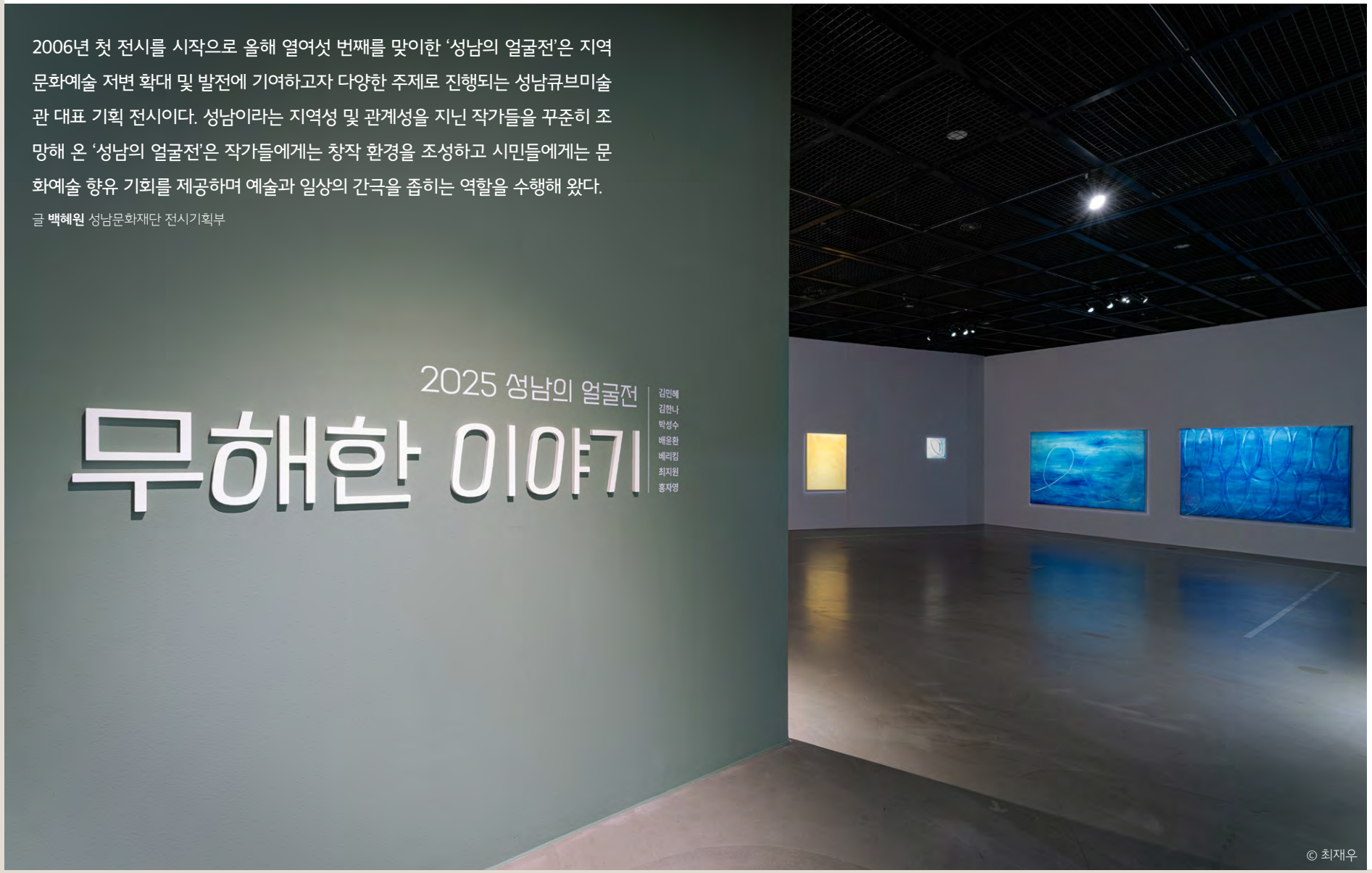
P R E V I E W

2025 성남의 얼굴전 <무해한 이야기>

예술이 전하는 '긍정의 힘'

2006년 첫 전시를 시작으로 올해 열여섯 번째를 맞이한 '성남의 얼굴전'은 지역 문화예술 저변 확대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는 성남큐브미술관 대표 기획 전시이다. 성남이라는 지역성 및 관계성을 지닌 작가들을 꾸준히 조망해 온 '성남의 얼굴전'은 작가들에게는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에게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며 예술과 일상의 간극을 좁히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글 **백혜원** 성남문화재단 전시기획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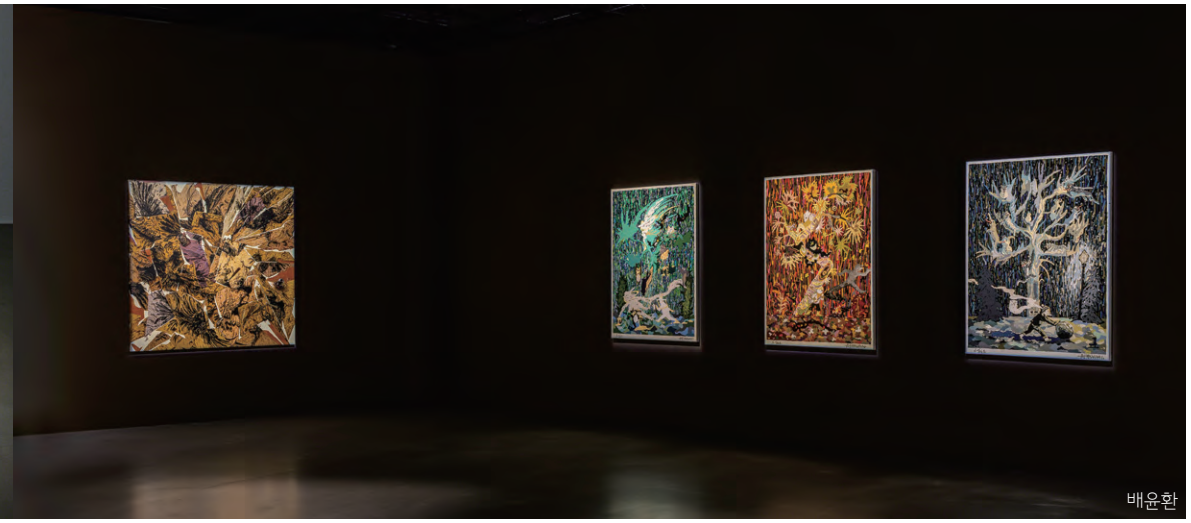


© 최재우

7월 6일까지 성남큐브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2025 성남의 얼굴전 <무해한 이야기>는 작가들이 표현하는 시각언어가 관람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무해한 방식으로 전달된다는 의미에서 붙여졌다. 여기서 '무해無害'란 단순히 해를 끼치지 않는 소극적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유를 촉진하면서도 상처를 유발하지 않는 예술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점점 치열해지는 사회에서 현대인은 끊임없는 긴장 상태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 부상하는 개념이 바로 '무해력無害力'이며, 이는 2025년 『트렌드 코리아』가 주목한 키워드이기도 하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날카로운 비판보다도 부드럽게 스며드는 이해와 감응의 태도일지도 모른다. 무해력이라는 키워드는 단순한 수동적 태도를 넘어, 관계 속에서 타인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새로운 감각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개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술은 또 하나의 언어가 된다. 따라서 이번 전시에서는 개인의 내밀한 서사와 감각의 경험, 혹은 사회적 이야기를 담아내되, 그것이 관람자에게 긍정적인 소통과 공감의 기회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작가들의 방식에 주목하고자 한다.

박성수


배윤환

© 배진환(상상공작소)

김민혜는 조각을 통해 공간을 탐구하며, 동시에 다양한 매체와 물성을 연구해 개인의 서사를 이야기한다. 조각과 조각이 평면에 닿았을 때 생기는 공간, 그것의 관계를 목탄 드로잉을 해체하고 재구성해 출력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며 평면 이미지가 마치 제3의 새로운 공간을 연상시키는 듯한 시각적 효과를 만들어 낸다. **김한나**는 삶 속에서 느끼는 다양한 감각처럼, 손에 잡히지 않는 무형의 것에 주목하고 이를 여러 시각으로 바라본다. 나무 패널을 해체하고, 우레탄폼을 도포하며, 다양한 색을 덧입히는 방식으로 표면을 쌓아 올려 캔버스 상의 다면체적 구조를 만들어 낸다. **박성수**는 종이에 점토를 얇게 발라 말아 내어 일정 기준에 도달했을 때 멈추는 행위를 반복한다. 작품 성형이 끝난 후 가마 소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완전한 결과물은 예상치 못한 예술적 변형을 이끌어 내는데, 이는 통제 불가능한 우연성 속에서 새로운 조형적 요소와 미적 영감을 찾는 작업의 본질적 동력이다. **배윤환**은 사회 이슈들, 혹은 사람들의 관계와 대화 속에서 생겨나는 감정의 혼합과 오염을 동화적인 화풍으로 풀어내며 작가만의 풍자와 해학을 담아낸다. 주로 '부정합', 즉 서로 잘 맞지 않는 틈과 충돌에 관심을 두고 이를 작업의 중요한 출발점으로 삼는다. **베리킴**은 일상 속 사물들에 생명을 불어넣어 특별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하며, 자아에서 진정한 행복이 비롯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외부 환경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획일화되어 가는 세상 속에서, 작가의 개성 넘치는 시선으로 탄생한 작품은 관람객들에게 즐거움과 위로를 선사한다. **최지원**은 드로잉과 회화, 미디어를 매개로 '나타남'과 '사라짐' 사이의 심리적 깊이를 탐구한다. 표면에서 나타나는 획은 단순한 흔적을 남기는 것을 넘어, 오히려 화면의 고유한 성질을 지우거나 드러내는 과정을 반복해 존재와 부재 사이의 미묘한 경계를 드러낸다. **홍자영**은 인류가 자연을 바라보고 해석해 온 방식을 정원 양식과 옛 놀이 방식을 통해 탐구한다. 풍수가 자연의 지형에서 보이지 않는 흐름과 원리를 읽어 내고 사물의 배치를 통해 새로운 기운을 만들어 내듯, 작가는 전시장 분위기를 바탕으로 여러 오브제가 보이는 방식을 끊임없이 변화시킨다.

베리킴

최지원

이번 <무해한 이야기> 전시는 성남 지역에 연고가 있는 젊은 예술가들의 작업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이들은 예술이 어떻게 사회와 소통할 수 있을지, 또 개인의 이야기가 어떻게 공감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 다양한 매체와 방식으로 고민하며 실험하고 있다. 각 작가들이 들려주는 '무해한 이야기'가 관계 속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실천적 모색이 되기를 바란다.

2025 성남의 얼굴전 <무해한 이야기>

일시 4월 25일(금)~7월 6일(일) 오전 10시~오후 6시
(매주 월요일 쉼)
장소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실
문의 031-783-8142~9

소프라노 조수미

이제, 미래를 노래할 시간

대한민국에서 조수미의 이름은 성악, 나아가 클래식 음악의 대명사다. 내년이면 벌써 세계 무대 데뷔 40주년, 그러나 여전히 눈부신 에너지로 무대를 누비는 현역의 거장은 자신이 지닌 '예술의 힘'을 더 가치 있게 나누기 위한 행보 역시 지속 중이다. 6월 21일, 조수미 국제 콩쿠르 입상자들과 함께하는 <더 매직 - 조수미 & 위너스> 성남 공연에 앞서, 우리 시대의 디바가 음악과 예술을 향한 끝없는 애정과 도전의 이야기를 전해 왔다.

글 **남소연** 성남문화재단 소통전략부 과장

© 이수진

여전히 많이 바쁘시지요? 현재 어떤 일정을 소화하고 계신지요?

아웃백 오페라 페스티벌Festival of Outback Opera 2025을 위해 호주 브리즈번에 왔어요. 초가을 저녁 야외 공연인데 윈톤과 롱리치에서 각각 다른 프로그램으로 무대에 오르죠. 어제(5월 9일) 도착해서 오늘은 푹 쉬고 내일부터 리허설에 들어갑니다. 호주는 제 우상이자 가장 가까운 친구인 소프라노 조안 서덜랜드 부부의 고향인데요, 조안의 남편 리처드 보닝은 제가 1994년 데카에서 발매한 <카니발! 프렌치 콜로라투라 아리아> 앨범의 지휘자이자 예술감독이었던 인연이 있기도 해요.

조수미 국제 성악 콩쿠르 입상자들과 함께하는 무대를 앞두신 만큼, 콩쿠르 이야기를 부탁드려야겠네요. 지난해 제1회 콩쿠르의 성공을 축하드리면서, 당시 이야기를 여쭤 보고 싶습니다.

첫 콩쿠르는 팬데믹 여파로 온라인 예선을 진행했던 아쉬움이 컸어요. 하지만 덕분에 짧은 기간에도 전 세계 500여 명의 성악가들이 지원했고, 심사위원들도 전원 참여해 본선 진출자를 잘 선발할 수 있었습니다. 콩쿠르 장소로 '프랑스의 정원'이라 불리는 루아르Loire 지역을 선택한 것은 제 친구이자 프랑스 문화계에 영향력이 큰 올리비에의 추천이었어요. 루와르에 샤토 드 라 페르테 엥보Château de La Ferté-Imbault라는 큰 성을 가지고 있으니 그곳에서 콩쿠르를 열면 어떻겠냐며 묻더군요. 부유한 기업인들의 여름 별장이 많은 곳이니 본선 진출자들을 홈스테이로 머물게 하면서 콩쿠르를 지역 축제로 만들자고요. 대도시에서 진행되는 콩쿠르는 참가자들의 유대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형식인 점이 항상 마음에 걸렸는데, 루아르 지역 관계자들의 지원 덕에 경연 기간 내내 참가자들이 홈스테이를 즐기며 서로를 알아 가는 네트워크 기회를 만들었어요. 1주간의 공동생활이 빚어낸 유대는 꽤나 강력해서, 우승자 탄생 시점까지 진정한 '원 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언젠가 모두 세계 무대에서 만나게 될 텐데, 이런 네트워크가 훗날 그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리라 생각했어요.

2024년 제1회 조수미 국제 성악 콩쿠르 현장에서 수상자들의 모습

성악가에게 이상적인 콩쿠르란 무엇인지 많이 고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건 콩쿠르를 시작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컸을 텐데요, 실제 진행 과정에서는 어떠셨나요?

가장 큰 고민은 '얼마나 좋은 성악가들이 얼마나 많이 지원할 것인가'였어요. 모집 시작부터는 매일 걱정이 많았죠. 지원자가 적거나, 특정 지역 지원자만 몰린다거나, 저로 인해 소프라노만 지원한다거나…. 다행스럽게도 500여 명의 성악가들이 파트별, 지역별로 골고루 지원해 정말 행복했어요. 또 콩쿠르의 핵심 기능 중 하나는 입상자들을 위한 좋은 무대와 녹음 기회 제공이라, 최고의 심사위원 초빙에 큰 노력을 기울였죠. 워너뮤직과 에라토 대표 알랭 랜서론, 전 메트 오페라 예술감독과 라 스칼라 극장 캐스팅 디렉터, 테너 라몬 바르가스 등 각계 대가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조수미 국제 콩쿠르 출신 성악가들이 이미 세계 무대에 초청되어 노래하는 지금, 콩쿠르가 더욱 발전해 미래의 스타를 발굴할 수 있기를 기대 중입니다. 또 1회 콩쿠르를 마친 뒤 관계자들이 함께 노고를 축하한 자리에서는, 대회 공식 후원사로 현지에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현대차그룹을 향한 찬사도 가득했어요. 한국의 위상이 유럽 문화의 중심지에서도 발휘됨을 실감하고 감동받은 시간이었습니다.

내년 2회 콩쿠르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첫 대회 때 실행하지 못한 지역 예선 진행, 세계 오페라 시장 트렌드에 맞춘 선정 기준, 입상자에게 주어지는 공연과 음반 녹음 기회 확대 등 여러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한불 수교 140주년이자 제가 세계 오페라 무대에 데뷔한 지 40주년이 되는 해라,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려 해요. 7월 제2회 콩쿠르와 연계한 축하 무대를 프랑스에서 진행하고, 입상자들은 바로 한국에서 <2026 조수미 & 위너스> 무대에 참가합니다.

지난 1회 콩쿠르의 심사 기준은 "자신이 왜 노래하는지 알고 투철한 미션을 가진 사람, 노래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셨지요. 이번 <조수미 & 위너스> 무대에 함께할 입상자 네 명에게서 이 부분을 느끼셨나요?

그런 느낌이 없는 성악가라면 뽑지 않았겠죠. 사실 모든 본선 진출자들은 자신의 음악성에 대한 믿음, 위대한 성악가가 되겠다는 의지로 가득했어요. 그들의 마음에 경쟁의 의미를 불어넣어 최상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콩쿠르죠. 특히 미래 커리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심사위원들 앞에서 다른 경쟁자들보다 자신을 잘 보여 줘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곤 하니까요. 스스로의 진가를 보일 수 있는 음악을 선곡하고 최선의 표현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은 우위를 가릴 수 없었어요. 오페

라는 특정 시대와 나라, 문화를 반영하는 스토리를 지닌 장르라 자라 온 환경이나 학습만으로는 공감이 힘들 수도 있지만, 각각의 아리아를 부를 때에는 결국 자신의 것을 만들어 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명의 성악가들은 그 이상의 무대를 보여 줬다고 평가하고 싶네요.

콩쿠르 입상 자체보다는 그 이후의 실질적인 음악 활동을 돕고 싶다는 바람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투어 역시 그중 하나겠지요?

입상자들에게는 다른 어떤 성악 콩쿠르보다 많은 우승 상금, 위너스 콘서트를 포함한 다양한 음악적 지원이 제공됩니다. 1회 입상자 대부분은 콩쿠르를 계기로 매니지먼트사가 생겼고, 유럽과 미국 유명 오페라단과 출연 계약을 맺은 연주자들도 있어요. 저는 이번 콩쿠르에서 성악가 개개인의 입장을 존중하는 동시에 본선 진출자들이 하나의 팀으로 우정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는데, 팀워크에서 우수한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다른 이들과 따뜻한 유대 관계를 만들어 가는 모습이 참 뿌듯했어요. 오페라 스타로서의 성공은 단순히 노래 실력만이 아니라 인성과 리더십, 좋은 인간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죠.

위너스 갈라 콘서트 프로그램의 콘셉트와 구성은 어떻게 조율하셨는지요?

주르주 비르반과 이기업은 테너, 지하오 리는 바리톤, 줄리엣 타키노는 소프라노 음역대를 노래합니다. 개인의 기량을 충분히 보여 줄 수 있는 곡들을 바탕으로 오페라 아리아 중 이중창, 삼중창 등 다양한 곡들을 선정하고, 관객 여러분이 평소 좋아하지만 라이브로 듣기 어려운 유명 아리아들로 구성했어요. 특히 제가 많은 곡들의 상대 주인공 역을 맡기 때문에, 입상자들이 보여 주는 최상의 실력과 더불어 풍성한 공연을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내년에 데뷔 40주년을 맞이하시지요. 긴 세월 한결같은 자기관리로 모범적인 예술가의 모습을 보여 주셨는데요,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1년의 대부분을 공연을 위해 움직이다 보니 언제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웃음). 40주년인 2026년에는 새로운 각오로 미래로 나아가는 계획을 모두 담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해 첫 콩쿠르를 시작했던 마음으로, 제1회 조수미 페스티벌Sumi Jo Festival 2026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 예술가들과 꾸미는 무대와 마스터클래스를 통해 지금까지 제게 힘과 용기를 주신 여러분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한국뿐 아니라 세계 여러 도시에서도 조수미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공연을 진행할 계획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며 언제나 열린 음악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앞으로 구상하고 계신 아이디어도 궁금한데요.

지난 40년의 음악을 '역사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만들어 왔다면 다가올 음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술과 문화예술의 융합'이라고 생각해요. 지난 3년간 카이스트 석학초청교수로 문화기술대학원 조수미 공연예술연구센터 연구자들과 함께 고민한 것은 다름 아닌 인공지능AI 기술과 문화예술의 접목이었습니다. AI가 우리 생활의 동반자로 자리하는 지금, AI의 역기능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문화예술 저변을 확대하고 다양성을 만들 수 있는 가치 또한 인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저는 '다음 세대에 전수될 만한 가치를 가진 예술인'의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제가 살아온 가치를 후대에 전하는 사명을 갖게 되었는데요, AI 학습에 적합한 자료를 제공하는 과정이 마치 새로운 곡을 받은 학생처럼 설렙니다. 이처럼 AI와 클래식, 노래와 기술, 환상적인 무대 구현을 위한 새로운 방법의 개발에도 계속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올해 남은 일정 중 특별한 계획도 있으신가요?

40주년 앨범 준비와 마스터클래스, 여러 공연 일정이 있어요. 미국 4개 도시 투어, 홍콩, 마카오, 선전Shenzhen, 저의 절친한 친구였던 바리톤 드미트리 흐보로스토프스키Dmitri Hvorostovsky, 1962-2017를 추모하는 러시아 공연 등이죠. 특히 40주년을 의미 있게 맞이하기 위한 준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음악 외에 앞으로 이루고 싶은 일들이 있으신가요?

지속적인 음악 생활과 더불어 제 경험과 기술을 후학에게 알려 주는 교육자의 역할, 음악 산업이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고민하는 연구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위한 배려도 잊지 않고 실천하고자 해요.

CULTURE+

공연장 옆 영화관
영화 <문라이즈 킹덤>

트렌드
창작의 동반자로 AI 활용하기

사라진 디자인
러시아 그래픽 디자인의 역사

영화 <문라이즈 킹덤>

소년과 소녀의 사랑, 세상의 금기에 도전하다

글 **라제기** 한국일보 영화 전문기자 사진 제공 **영화사 진진**
1999년 한국일보 입사 후 편집부와 사회부, 국제부 등을 거치며 엔터테인먼트 팀장과 문화부장, 신문에디터로 일했다. 2004년부터 영화를 취재해 왔으며, 영국 서식스대 대학원에서 영화학을 공부했다. 저서 『질문하는 영화들』 『말을 거는 영화들』, 역서 『할리우드 전복자들』로 영화를 사랑하는 독자들과 소통하는 한편, 뉴스레터 '영화로운'으로 매주 구독자들을 만나고 있다.

『우연히, 웨스 앤더슨 Accidentally Wes Anderson』이라는 책이 있다. 사진집이다. 국내에서는 2021년 첫 출간됐고 올해 2권이 나왔다. 꽤 잘 팔리는 책이라는 의미다. 웨스 앤더슨은 미국 영화감독이다. 한국에서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2014로 유명하다. 국내 극장가에 '아트버스터(블록버스터처럼 흥행하는 예술영화)'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낸 영화다.

앤더슨 감독 이름이 들어갔으니 그가 찍은 사진들을 모아 놓은 책이라 생각할 수 있다. 아니다. 그의 영화 속 명장면 모음집도 아니다. 책 제목은 월리 코발, 어맨다 코발 부부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계정 이름과 동일하다. 팔로어가 191만 명이나 되는 인기 계정이다. 코발 부부는 앤더슨 감독 영화 속 장면과 비슷한 사진들을 계정에 공유하고 있다. 팔로어들이 사진을 올리기도 한다. 계정에 '우연히'라는 부사가 붙은 이유다. 책은 계정에 올라온 사진들 중 200장을 엄선해 출판했다.

앤더슨 감독이 어떤 이미지들을 스크린에 구현했길래 191만 명이 앤더슨 감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에 열광하고 이를 즐기는 걸까. <문라이즈 킹덤>2013을 보면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다. 앤더슨 감독의 연출 방식과 개성을 온전히 드러내는 영화 중 하나이니까.

대칭 구도와 동화로 그려 낸 질풍노도

소년 샘(재러드 길먼)은 카키 스카우트 대원이다. 나이는 12세. 그는 대원 사이에서 문제아로 꼽힌다. 샘은 어느 날 캠프를 탈출한다. 스카우트대에 비상이 걸린다. 샘뿐만 아니다. 캠프가 열린 뉴펜잰스섬에 사는 12세 소녀 수지(카라 헤이워드)도 집을 나간다.

샘과 수지는 공통점을 지녔다. 둘 다 또래들에게서 따돌림을 당한다. 샘은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었고, 수지는 엄마 로라(프랜시스 맥도먼드)의 불륜으로 가족 해체 위기에 놓여 있다. 무엇보다도 둘은 서로를 향한 마음이 뜨겁다. 탈출과 가출을 감행한 이유다.

어린 소년 소녀의 단순 일탈 정도가 아니다. 샘과 수지는 성인처럼 사랑한다. 프렌치 키스를

나눌 정도로 농밀한 사이다. 표현 수위가 아슬아슬할 수 있다. 하지만 <문라이즈 킹덤>은 샘과 수지의 불장난 같은 사랑을 소동극으로 그려 낸다. 둘의 사랑이 가끔 애틋하게 보이지만 관객은 종종 미소를 머금게 된다. 동화 같은 화법 때문이다.

<문라이즈 킹덤>만 동화를 닮은 게 아니다. 앤더슨 감독 영화들은 동화 속 삽화를 연상시키는 장면들이 많다. 그렇다고 가벼운 내용들이 스크린을 채우지는 않는다.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은 살인과 킬러라는 심각한 소재로 웃음을 만들어 낸다. <프렌치 디스패치>2021는 한 잡지사 기자들의 시련과 분투를 유머로 그려 낸다. 앤더슨 영화 속 심각하거나 진지한 내용은 알록달록한 색감 앞에서 완화된다. 좌우 대칭을 절묘하게 이룬, 지극히 회화적인 화면 구도 역시 동화 같은 이미지를 강화한다. 동화와 대칭 구도는 앤더슨 감독의 인장이다. 『우연히, 웨스 앤더슨』 속 사진들이 품은 감성이기도 하다.

웃음 속에 담긴 변혁기 1960년대의 모습

동화의 화법을 사용한다고 하나 마냥 순진하지는 않다. 세상에 대한 관심이 스크린에 스며 있다. <문라이즈 킹덤>은 1960년대 중반 미국을 배경으로 삼는다. 당시 세계는 68혁명으로 대변되던 변혁의 시기였고 미국은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다. 베트남전 참전에 따른 반전 정서, 기존 체제에 대한 반감이 만들어 낸 히피 문화, 대중소비사회 속 시민의 각성 등이 맞물려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이뤘다. 영화는 당시 정서를 샘과 수지의 반항기 담긴 사랑을 통해 전한다. 샘이 캠프를 탈출하고 수지가 샘과 사랑의 도피에 나선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부모 없는 문제아 샘이 아동보호시설에 수용될 위기에 처해서다. 아동보호시설은 아직 남아 있는 기존 체제의 '형벌'로 해석할 수 있다.

가족의 해체도 <문라이즈 킹덤>의 주제다. 영화 속 기존 가족은 무너지고 새로운 가족이 재구축된다. 수지 부모의 불화, 로라와 지역 경찰 간부 샤프(브루스 윌리스)의 금지된 사랑, 샘 부모의 죽음은 기존 가족의 붕괴를 상징한다. 샘과 수지가 작은 곶에 자신들만의 안식처(둘은 문라이즈 킹덤, '달이 뜨는 왕국'이라고 지칭한다)를 만드는 장면, 샤프가 샘을 입양하는 모습 등은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의미한다.

영국 작곡가 벤저민 브리튼1913~1976의 어린이 오페라 <노아의 홍수> 공연은 꽤 상징적으로 쓰인다. 샘과 수지는 1년 전 <노아의 홍수> 공연 때 처음 만났고, 이들이 도피 중일 때 섬에 있는 교회에서는 <노아의 홍수>를 공연 중이다. 마침 폭풍우가 몰려와 섬에는 홍수가 난다. 스카우트 기지 텐트가 물에 휩쓸리는 모습은 기존 체제 또는 기성관념이 새로운 물결에 의해 씻겨 나간다는 은유일 수 있다.

부딪치고 싸운다지만 결국 '조화'

물론 이 영화의 장면들을 분석하며 굳이 복잡하게 볼 필요는 없다. 10대들의 도피 행각과 어른들의 우스꽝스러운 대응이 빚어내는 웃음과 시각적 재미만으로도 즐겁게 볼 수 있고 음악과 화면의 조화로운 만남만으로도 흥이 나는 영화이기도 하니까. 샘과 수지의 도발적인 행동이 10대 아이를 둔 어른에게는 '공포'로 다가올 수 있겠지만 말이다.

당시도 지금도 12세 소년, 소녀의 사랑은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렵다. 여전히 유교의 영향을 받는 우리 사회에서는 더더욱 인정받을 수 없는 관계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한창 공부할 나이에' 같은 지청구나 들을 만한 교제이다.

<문라이즈 킹덤>을 굳이 소년, 소녀의 사랑 이야기로 한정 지을 필요는 없다. 사람들의 화합이라는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봐도 좋을 듯하다. 영화는 브리튼이 작곡한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입문>으로 시작한다. 목관악기와 금관악기, 현악기, 타악기가 각각 개별적으로 연주하다 함께 화음을 맞추게 되는 곡이다. <문라이즈 킹덤> 속 인물들은 각자의 가치관과 처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말하고 행동한다. 하지만 영화 막바지에 이르면 샘과 수지를 구하기 위해 힘을 모은다. 사람은 아무리 부딪치고 싸운다 해도 결국 조화롭게 살기를 원하는 존재인지 모른다. <문라이즈 킹덤>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 아닐까.

웨스 앤더슨 감독의 <문라이즈 킹덤>은 7월 16일(수) 성남미디어센터 상영작으로 만날 수 있다.
문의: 성남미디어센터 031-724-8370

창작의 동반자로 AI 활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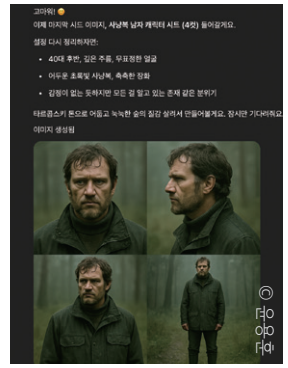
질문 하나로 만드는 새로운 세계

AI를 활용한 창작의 가장 큰 장점은 전문적인 기술 지식 없이도 내가 상상하는 것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나만의 오리지널리티와 상상력만 있다면 기술 부분은 인공지능이라는 협력자가 해결해 준다. 과거에는 막대한 시간과 예산이 필요했던 표현의 영역에 이제는 누구나 도전할 수 있게 되었다.

글 **윤용훈** 어반아츠 프로젝트 대표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영화과 전문사를 졸업했다. 장편·단편영화를 연출하며 국내외 영화제에서 작품을 선보였다. 현재는 전북대에서 뉴미디어아트제작 실습을 가르치는 한편, AI를 활용한 예술창작을 통해 기술과 예술의 융합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다.

동영상 생성 AI '런웨이 Gen-4'

이 모든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은 '대화'이다. 단순히 AI에게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질문을 AI가 먼저 던져 주기도 한다. 다양한 시행착오 속에 뜻밖의 발견도 생긴다. 특히 예술교육에서 반복적으로 요구되는 전문가의 지식과 노하우를 GPTs(GPT탐색) 기능을 활용한 맞춤형 챗봇을 통해 널리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이 기능은 사용자가 특정 목적에 맞춰 챗봇을 직접 설계·설정할 수 있는 도구로, 복잡한 코딩 없이 나만의 AI 파트너를 만들어 창작에 활용할 수 있다. 즉 기획·시나리오 작성·이미지 생성·영상 제작·편집까지 AI를 활용한 1인 창작 시스템이 가능한 시대가 열린 것이다. 영상 전공자가 아니거나 전문 스태프 없이 창작하는 이들에게는 맞춤형 챗봇이 영화적 언어와 연출 원리를 알려 주는 조력자가 된다. 덕분에 과정을 간소화하고 창의적인 측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 다만 때로는 '이 아이디어가 과연 나에게서 비롯된 것인지' 질문을 던질 필요도 있다. 과거 청소년 수업에서 자신이 만든 시나리오 제목과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 사례는, 고민 없는 프롬프트는 결코 내 것이 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그래서 나는 이전에 '스토리해커'라는 맞춤형 챗봇을 만들어, 사용자가 자신의 정치·사회·예술적 관점을 정리한 문서를 바탕으로 일상 속 부조리를 다루는 단편영화를 만들도록 유도했다. 이 과정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사유하도록 이끄는 장치였으며, AI와 협업에서 '질문'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스토리보드 작가 지망생 지수' 챗봇 작업 화면. 사용자와 대화를 통해 연출 방향을 함께 고민한다

인간과 AI의 협력에서 주목할 점은, 수직적 명령 관계가 아닌 '수평적 파트너'로 협력할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다. 자신의 의도를 AI와 충분히 공유하고, 함께 질문을 다듬어 가는 과정에서 더 정제된 프롬프트를 도출할 수 있다. 인간은 예술적 동기를 바탕으로 질문을 던지고, AI는 다양한 방식으로 응답하면서 창작 방향을 넓혀 간다. AI는 정답을 제공하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길을 찾아가는 탐색자다. 때로는 주어진 프롬프트를 끝까지 완수하려는 성향 덕에 의외의 해답을 발견하기도 한다.

최근 대학 강의를 준비하며 챗봇 '스토리보드 작가 지망생 지수'를 만들었다. 영상 제작 입문자들이 장면 구성이나 컷 설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설계된 이 챗봇은 사용자와의 대화를 통해 연출 방향을 함께 고민한다. 설정상 27세 사회 초년생으로 미술을 전공하고 스토리보드 작가를 꿈꾸는 인물이다. 실수에는 "앗,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깜빡했어요"라고 웃으며 넘기는 인간적인 면모도 지녔다. 이 설정은 챗봇이 작업 도중 지침을 잊거나 실수할 때, 그것을 인간적인 허점으로 받아들이며 다시 확인하는 습관을 갖게 하려는 의도다. 기술을 대하는 태도와 협력 방식의 중요성을 사용자 스스로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

영상 제작을 위한 추천 AI 툴

생성형 AI를 활용한 영화 제작 역시 기존 방식처럼 크게 사전 준비-제작-후반 작업의 흐름을 가진다. 사전 준비 단계는 시나리오와 스토리보드가 핵심이다. 시나리오는 인간 창작자의 서사적 동기와 보조작가 챗GPT의 지원이 결합되어 완성된다. 이어서 스토리보드 작업을 위한 이미지 생성 과정에서는 챗GPT와 미드저니를 병행 사용해 캐릭터와 공간의 시

각적 일관성을 확보한다. 제작 단계에서는 촬영에 해당하는 동영상 생성이 중심으로, 클링Kling AI와 런웨이Runway Gen-4의 도움을 받아 영상을 생성한다. 편집 툴이 필요한 후반 작업에서는 다양한 기능을 무료 제공하는 캡컷CapCut PC 버전이 입문자에게 특히 유용하다.

앞서 언급했듯 그 과정에서 맞춤형 챗봇의 활용은 필수적이다. 챗봇은 각 AI 툴의 고유한 기술 언어를 이해하고, 인간의 언어를 기술 언어로 변환하는 번역자이자 중재자 역할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코딩 지식 없이 게임을 만들거나 이미지 생성 도구에서 섬세한 프롬프트를 만들어 내기 위해 챗봇의 조언을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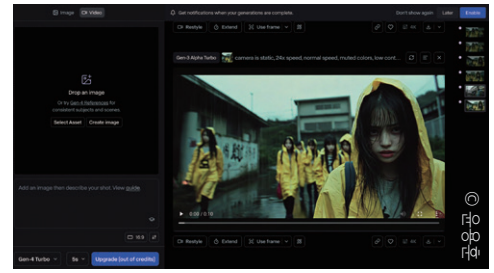
최근 등장한 수많은 생성 AI 툴 중 입문자가 꼭 알아 두면 좋을 AI 도구들은 다음과 같다.

이미지 생성에서는 챗GPT와 미드저니의 병행 사용을 추천한다. 챗GPT는 창작 과정의 대화형 정리와 프롬프트 구성에 뛰어나다. 최근 '지브리 스타일 이미지 만들기'에서 보았듯 이미지 생성 능력 향상도 주목할 만하다. 미드저니는 빠른 이미지 생성과 정밀한 시각 표현이 강점으로, 'Omni' 기능을 통해 동일 캐릭터의 표정과 포즈를 다양하면서도 일관성 있게 구현할 수 있다. 이는 영상 제작에서 캐릭터의 시각적 통일성 유지에 큰 도움이 된다. 두 툴을 병행하면 창의성과 일관성을 모두 충족할 수 있다.

영상 생성 툴은 런웨이 Gen-4와 클링 AI를 추천한다. 광원 효과와 질감 표현이 강점인 런웨이는 인물의 얼굴에 드리운 빛의 방향과 밝기, 옷감의 재질을 실감 나게 표현한다. 업데이트를 통해 동양인의 얼굴 표현과 걸음걸이 묘사도 개선했다. 다만 생성 시간이 길고, 고화질 영상을 위해서는 업스케일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 클링 AI는 짧고 간결한 시퀀스를 상대적으로 빠르게 생성할 수 있으며 자연스러운 표정과 동작 묘사에 강점을 가진다. 무료 크레딧 제공으로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지만, 생성 속도가 느릴 수 있어 시간 여유를 두고 작업하는 것이 좋다.

OpenAI의 영상 생성 모델 '소라Sora'는 초기에 주목받다 최근 클링 AI와 런웨이에 자리를 내준 상태다. 그러나 나는 소라가 다시 주목받을 것이라 기대한다. 챗GPT 하나로 시나리오, 스토리보드 구성, 이미지 생성, 영상 제작까지 가능한 통합 환경 제공은 예산 절감과 제작 효율성 측면에서 큰 강점이기 때문이다. 수많은 생성 AI 도구가 난립하는 요즘, 단일 플랫폼에서 모든 작업이 가능하다는 점은 편의성과 일관된 작업 흐름을 부여한다.

최종 영상 편집에는 캡컷 PC 버전을 추천한다.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와 다양한 무료 기능은 영상 편집 입문자에게 적합하다. 사운드 편집은 일레븐랩스ElevenLabs와 타입캐스트 모두 더빙과 립싱크 음성 확보에 유용하지만, 주로 성우 목소리 기반 음성이 많아 실사 영상에는 어색하게 들릴 수 있는 한계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입캐스트는 한국어 특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사용이 쉽다는 점이 강점이다.


OpenAI의 영상 생성 모델 '소라'

효과음이나 배경음은 픽사베이Pixabay를 활용해 보자. 고급스러운 앰비언스 사운드와 효과음을 저작권 걱정 없이 무료 사용할 수 있다.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도 다양한 배경 음악과 사운드의 활용이 가능하다.

질문이 만드는 나만의 이야기

생성형 AI 입문자에게 가장 큰 진입 장벽은 프롬프트 입력이다. 질문 작성이 어려울 때 역으로 챗GPT에 "어떤 질문을 던지면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면 적절한 예시를 제안받을 수 있다. 창작자의 몫은 결국 자신의 의도를 분명히 인식하고 잘 전달하는 방식을 찾는 것이다. AI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제시할 때도 있지만, 이는 창작에서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 익숙한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아이디어와 전환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다만 AI와의 협업을 전적으로 컨트롤할 수 없다는 점이 부담일 수 있다. 그래서 반복 실험과 결과 비교,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 AI의 특성과 한계를 익히는 시간이 필요하다.

프롬프트에 동일한 문장을 넣어도 매번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AI의 다양한 출력 중 유의미한 선별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크리에이터를 넘어 셀렉터, 큐레이터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수많은 결과물 중 내 이야기의 맥락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을 고르고 조합을 고민하는 것이 창작자의 진짜 역할이다.

사실 창작자도 처음부터 정확한 장면이나 설정을 떠올리며 작업하지는 않는다. AI는 이러한 모호함을 도구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문을 열어 준다. 영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처럼, 이제는 누구나 AI와 함께 질문 하나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할 수 있다.

우리는 결국 '평균의 언어'를 학습한 AI를 다루고 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특히 평균값에 중심을 놓고 결과를 생성하는 인공지능의 방식은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기도 하다. 삶의 태도가 평균값을 벗어날 때 비로소 진정한 질문이 생기고, 그 질문을 담은 프롬프트야말로 AI로부터 주옥같은 답을 끌어낼 수 있는 열쇠가 된다. 두려워하지 말고 상상의 첫걸음을 내딛어 보자.

러시아 그래픽 디자인의 역사

모스크바의 곰과 사회주의 그래픽

© shutterstock

2014년 러시아 소치Сочи에서 열린 동계올림픽 폐막식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러시아 예술가들의 작품이 연출되었는데, 그중에서도 절대주의suprematism의 기하학적인 대형 그래픽이 공중에 떠 있는 장면이 지금도 기억난다. 카지미르 말레비치Kazimir Malevich의 예술 정신을 표현한 그 이미지들이 올림픽에 등장하리라곤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패럴림픽 포스터에도 말레비치의 흔적이 남아 있다. 보도 자료에는 "각 포스터의 그림은 평등과 패럴림픽 정신, 인격의 굳건함과 승리의 의지를 상징한다. 이 창의적인 디자인은 러시아의 유명한 예술가 카지미르 말레비치의 작품을 떠올리게 하며 러시아 사람들에게 친숙한 스타일이다"라고 언급되었다.

글 **김상규** 서울과학기술대 디자인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산업디자인과와 국민대 대학원 공업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퍼시스 가구연구소에서 의자를 디자인했다. 의자를 비롯한 사물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서 큐레이팅과 아카이브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저서로는 『의자의 재발견』『디자인과 도덕』 등이 있으며 대표적인 의자 디자인으로는 파트라에서 생산 중인 'STING' 'SKIN' 'CITY'가 있다.

미샤와 붉은 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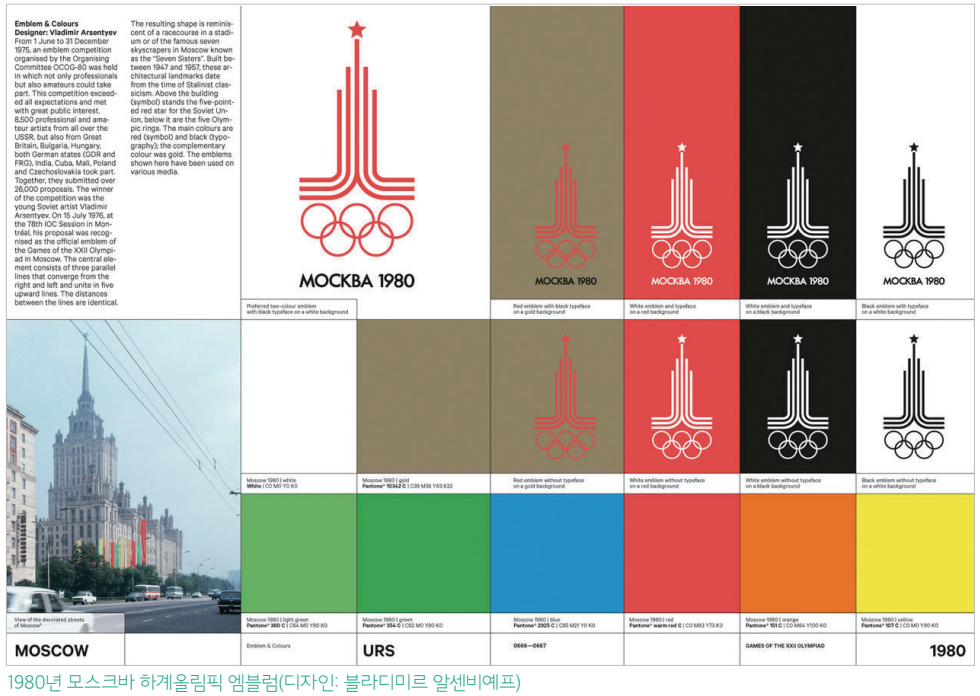
시간을 거슬러, 1980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하계올림픽의 마스코트인 '미샤Misha'를 떠올리면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미샤는 그 이전의 마스코트들과 달리 곰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그야말로 수채화 그림과 같았다. 미샤를 디자인한 빅토르 치치코프는 실제로 어린이 책 일러스트레이터였다. 기하학적인 이미지에만 익숙하던 사람들은 허리춤엔 줄무늬 벨트를 착용하고 미소까지 짓는 미샤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덕분에 냉전 시기에 공산 국가에서 열린 올림픽의 마스코트임에도 불구하고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한 첫 사례가 되었다. 행사 당시 미샤가 그려진 머그컵 등 각종 팬시 상품이 서방 세계에서도 불티나게

2014년 소치 동계 패럴림픽 아이스하키와 스키 포스터

1980년 모스크바
하계올림픽 마스코트 미샤
(디자인: 빅토르 치치코프)

팔렸고 지금까지도 역대 최고의 마스코트로 손꼽힌다.

2014년과 1980년의 두 올림픽이 보여 준 이 같은 상반된 이미지는 러시아의 시각 예술, 특히 그래픽의 두 가지 결을 극명하게 보여 준다. 이것을 사실적인 것과 추상적인 것으로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개방 정책 전후의 온도차를 보여 주는 단적인 사건임에는 틀림없다. 사회주의 미학에서 흔히 말하는 리얼리즘은 한동안 추상적인 이미지 자체를 배제하는 명분이 되곤 했다. 하지만 다시 시간을 더 거슬러 가면 미샤보다는 기하학적인 이미지가 러시아의 그래픽 전통에 가까움을 알 수 있다.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의 또 다른 그래픽이었던, 붉은 별을 담은 엠블럼과 픽토그램만 보더라도 대단히 추상적이다. 소치 올림픽에서 러시아 구축주의constructivism와 절대주의를 부각시킨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을 것이다.



1980년 모스크바 하계올림픽 엠블럼(디자인: 블라디미르 알센비예프)

로드첸코와 평등한 평면

러시아 구축주의와 절대주의는 1920년을 전후로 공존했으나 상대적으로 구축주의가 오랫동안 영향을 미친 점을 생각하면 알렉산더 로드첸코Alexander Rodchenko를 빼놓을 수 없다. 알렉산더 로드첸코는 러시아 혁명 이후 등장한 가장 다재다능한 예술가이자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구축주의의 대표적 인물이기도 하다.

지난 2012년에는 러시아 그래픽 디자인 아카데미가 로드첸코 탄생 12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을 만큼 각별한 인물이다. '로드첸코 120'이라는 이 프로젝트는 2012년 내내 시카고, 멕시코, 인디애나폴리스, 파리, 푸에블라, 타이베이, 모스크바, 테헤란 등 세계의 주요 도시를 순회했다. 포토몽타주와 사진 작업도 전개했는데 사회 참여적이었으며 형식적으로 혁신적이었고 회화적 미학에 반대했다. 20세기 그래픽 디자이너들의 많은 작품들이 로드첸코의 초기 작업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중에서는 레닌그라드 국영출판사인 렌기즈를 위해 디자인한 <렌기즈: 모든 분야의 지식에 관한 책>이 가장 잘 알려진 포스터일 것이다. 로드첸코가 직접 촬영한 릴리야 브릭의 모습에 글자가 점점 커지는 방식을 활용하여 여성이 책을 사라고 외치는 듯한 이미지를 보여 준다. 이 포스터는 상업적인 디자인이지만 선동선전을 위한 정치적 포스터의 스타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 이유는 '표면'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20세기 초에 모더니스트들이 지향한 회화적 추상은 평평한 표면이 특징적으로 드러났다.

프랑스 철학자 자크 랑시에르Jacques Ranciere는 그의 저서 『이미지의 운명』에서 이것이 그래픽 디자인의 표면에서는 '평등한 평면'이 되었다고 한다. 미학과 정치가 축약된 형태로서 위계질서 없는 어떤 세계의 모습을 그려 낸 것인데, 여기에 각 기능들이 서로에게로 미끄러져 들어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로드첸코가 항공사 도브롤레트Dobrolet를 위해 디자인한 포스터를 그에 딱 맞는 사례로 제시했다. 여기에서는 비행기의 양식화된 형태와 문자가 기하학적 형태로 동질성을 갖는다. 그리고 추상회화와 실용적인 포스터의 동질성을 갖고 있기도 하다.

알렉산더 로드첸코의 포스터 <렌기즈: 모든 분야의 지식에 관한 책>(1924)과 <도브롤레트>(19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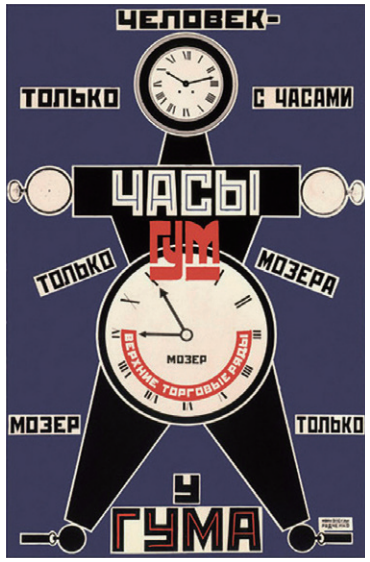
신경제 이후의 사회주의 리얼리즘

사실 <도브롤레트> 포스터는 로드첸코가 시인이자 극작가였던 블라디미르 마야코프스키Vladimir Mayakovsky와 만나는 계기가 되었다. 포스터를 본 마야코프스키가 삼류 시인이 쓴 슬로건이라고 비아냥거렸으니 유쾌한 만남은 아니었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이 덕분에 둘은 협업을 시작했다. 마야코프스키가 텍스트를 작성하고 로드첸코는 디자인을 맡은 것이다. '마야코프스키-로드첸코 광고 건설사'라는 조직을 만들어 붉은 광장의 백화점인 굼ГУМ 등 여러 기업과 기관의 포스터로 탁월한 성과를 보였다.

이렇게 활동하던 당시는 소비에트 역사에서 신경제정책NEP, 1921~28으로 알려진 비교적 평화롭고 반자본주의적인 시기였다. 신경제정책이 도입되자 여러 기업과 기관이 경쟁하면서 광고 제작이 활발했다고 한다. 로드첸코를 포함한 구축주의자들은 '창작'보다는 '건설'이나 '구축'이라는 말을 더 좋아했으며 예술의 유일한 적절한 목표가 효율성utility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진정한 구축은 실용적인 필요성'이라는 슬로건까지 내세웠으니 상업적인 그래픽 작업이든, 혁명을 위한 그래픽 작업이든 다를 바가 없었다.

그렇지만 거기까지였다. 이후로 한동안 이처럼 진보적인 생각과 디자인을 보기는 어려워졌다. 영미권에 비해 자료가 제대로 공개되거나 연구되지 않은 탓도 있겠지만 1936년부터 1939년까지 대공포의 시대를 포함하여 스탈린이 집권하던 시기는 이전과 확연히 달랐다. 특히 디자인과 미술, 건축에서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구축주의와 절대주의의 전통은 더 이상 자리 잡기 힘들었다. 2차 세계 대전을 겪은 뒤에도 계획경제 시스템 아래에서는 그 상황이 더 나아질 수 없었다.

서구에 비해 제품의 수준이나 생산성이 떨어지자 소련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시작했다. 실제로 소련 산업은 노후화되어 있었고, 소련 지도부는 디자인을 국제적 동향에 맞추기 위한 중요한 분야로 주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소비에트 연방 산업디자인 연구소VNIITE가 1962년에 설립되었다. 이 기관의 러시아어 명칭을 직역하면 '전연방 기술 미학 연구소'다. 러시아에서 산업 디자인을 지칭하는 용어는 '기술 미학'이기 때문이다. 김종균은 『모던데자인』(이유출판, 2025)에서 "연구소의 디자인은 서방 국가 디자인과는 목적과 방향이 명백히 달랐는데, 디자인을 국민 복지의 관점에서" 바라보았고, "미국식의 인위적인 진부화와 같은 스타일링 작업은 지양하였다"고 설명한다. 과학 연구 및 혁신을 위한 연구소인 VNIITE는 1960년대 초 다른 많은 신규 연구소와 함께 설립된 싱크탱크think tank로, 소련 산업을 수출에 적합한 품질 기준에 맞추기 위한 임무를 맡았다.



마야코프스키-로드첸코, 백화점 굼의 <모저 시계> 광고(1923)

냉전 시대의 문화 교류

아울러 소련은 디자이너들의 국제 조직에 참여하고 싶어 했고, 1965년에 ICSID(국제산업디자인단체협의회, 현재는 국제디자인기구WDO로 명칭을 바꾸었음) 회원국 지위를 얻었다. 10년 뒤에는 마침내 모스크바에서 ICSID 총회까지 열었다.

그해, 1975년의 세계는 무척 복잡한 상황이었다. 우려하던 석유 위기가 현실이 되었고 히피 운동은 평화, 사랑, 이해를 설파했으며, 미국과 소련이 대리전을 벌인 베트남 전쟁은 1975년 4월 사이공 함락으로 종결되었다. 또 1975년 7월에는 아폴로 18호와 소유즈 19호가 우주 공간에서 도킹하여 이틀간 실험을 진행했는데 소련과 미국의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에서 악수하는 순간을 전 세계 사람들이 TV를 통해 목격했다.

<ICSID '75 모스크바 대회>는 소련 입장에서 제2차 세계 대전 승리 30주년이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었다. 당연히 VNIITE가 주최한 이 행사는 기관의 가치와 역할을 보여 줄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 VNIITE는 '인간과 인류를 위한 디자인Design for Man and Mankind'이라는 큰 주제로 행사를 기획했다.

지금 시각으로 보더라도 '디자인을 통한 사회 전체의 인간 복지Human well-being in society at large;

ICSID '75 모스크바 대회 포스터

through design'라는 회의 제목은 대단히 앞선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디자인과 국가 정책' '디자인과 과학' '디자인과 노동' '디자인과 여가' '어린이를 위한 디자인' 그리고 개발도상국, 재난 구호,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디자인 등 오늘날의 디자인 연구 주제가 망라되어 있었다. 미국을 제외한 많은 회원국의 디자이너들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이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완벽했으나 한 가지 변수가 있었다.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인 ICDIS 행사 기간이 노벨상 수상자 발표 주간과 맞물렸던 것이다. 이것이 미칠 파장을 예상하지 못한 VNIITE 직원들은 갑자기 격리되어 몇몇 대표자를 제외하고는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다. 또 그 기관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Tekhnicheskaia estetika>의 기자도 이탈리아 디자이너 에토르 소트사스와 인터뷰를 한 것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당시에 소련 시민이 해외여행을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으므로 세계의 디자인 동료들과 만날 수 있다는 기대로 가득 찼던 소련의 디자이너들에게는 큰 실망이 아닐 수 없었다.

사실, 행사 직전인 1975년 10월 9일에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발표되었다. 그런데 수상자가 바로 소련의 인권 운동가 안드레이 사하로프Andrei Sakharov였던 것이다. 이 소식은 전 세계에 대서특필

<Retroptopia>전에 전시된 ICSID '75 모스크바 대회 자료 © 김상규

되었지만 소련만은 예외였다. 가장 강력한 원자폭탄을 개발한 핵물리학자로 이후 평화와 군축을 위해 투쟁한 인물인데, VNIITE 관계자들은 그의 수상 소식을 알 수가 없었다. 공들여 준비한 행사를 갑자기 국가 보안 기관KGB이 간섭하고 감시한 것은 바로 그 소식이 전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기록과 헌정

그러나 이 사실은 ICSID의 기록에는 남아 있지 않다. 당시 ICSID 행사 중 최대 규모였음에도 불구하고 ICSID/WDO 웹사이트에는 소련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ICSID '75 모스크바 대회 관련 문서는 베를린에서 열린 한 전시에서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나마 자세한 내용은 당시 대회에 참여한 스웨덴 디자인 전문가들의 기록과 러시아 내의 기록을 바탕으로 쓴 한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Margareta Tillberg의 <Swedish designers' Cold War visit to ICSID '75 Moscow>)

마야코프스키-로드첸코, <붉은 10월 쿠키> 광고(1923)

1,500명의 디자인 전문가들이 모스크바에 모여 인간 존엄성을 위한 디자인과 더 나은 인간 조건을 위한 디자인을 논의했다는 것, 그것도 1975년에 국가 보안 기관의 감시 속에서 진행될 수 있었다는 것은 놀라울 따름이다. 그럼에도 그것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은 더욱 놀랍다. 참고한 논문의 말미에는 유리 솔로비예프Yuri Soloviev를 비롯하여 엄격한 상황에서도 분투한 VNIITE 직원들에게 글을 헌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디자인 분야에서 러시아만큼 영웅적인 과거를 가진 나라도 별로 없다. 그러나 1920년대 전성기 이후는 어떤가. 1975년의 사건 이래로 VNIITE 관계자들과 마찬가지로, 대공포의 시기를 지나야 했던 로드첸코를 비롯한 당대의 창작자들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크고 작은 권력에 의해 절망하고 또 분투했을 것이다. 아마도 2014년 소치 올림픽의 개막식과 폐막식에서 보여 준 구축주의와 절대주의의 이미지들은 바로 그 예술가와 디자이너, 건축가들에 대한 헌정이 아니었을까.

SEONGNAM+

성남의 예술가
소프트 조각가 김채윤

성남아트센터 개관 20주년
성남아트센터, 20년의 기록

성남아트센터 가이드
캘린더+맵

6·7월의 큐레이션
프로그램 가이드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안내

성남아트센터 공간 탐구생활
성남아트센터 '카페 콘서트'

소프트 조각가 김채윤

미술이 도시를 기억하고 기록할 때

기억은 불완전하다. 불완전한 기억을 저장하고 꺼낼 때 우리는 저마다의 매개체를 사용한다. 김채윤 작가는 부드러운 천을 꿰매고 깁는 행위로 기억을 기록하고 감정을 구체화한다. 그 대상은 작가가 태어나고 자란 성남이라는 지역,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사라져 가는 모든 것,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들이다.

글 **김문영** 객원기자 사진 **최재우**

바느질로 형상화하는 부드럽고 친근한 세계

'돌멩이는 차갑고 나무는 딱딱하다'는 것은 고정된 감각이자 관념이다. 상흔은 추하고, 옛것은 매력적이지 않으며, 쓸모를 다해 버려지는 것들은 더 이상 가치가 없다는 인식도 진실이 아니다. 김채윤 작가의 소프트 조각은 차갑고 딱딱한 대상조차 따뜻하고 친근한 감각으로 다시 느끼게 한다. 고정된 감각과 생각을 비틀고 단단한 세계에 균열을 내 새로운 세상을 구축하려는 의도가 담긴 작업이다.

김채윤 작가는 천이나 실 같은 부드러운 소재로 형상을 만드는 소프트 조각을 중심으로 사진, 영상, 설치 등 다양한 장르의 융합을 시도한다. 주제는 지역과 자연, 인간의 관계에 대한 탐구다. 특히, 변화하는 도심 속에서 잃어버린 기억과 이야기를 발굴해 복원하는 작업을 이어 가고 있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 오늘도 발 딛고 살아가는 성남이라는 지역이 가진 역사와 삶이 작가에게 끊임없이 영감을 불어넣는다.

연성 소재 중에서도 천과 실을 먼저 선택해 꿰매고 깁는 행위에 집중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출발은 작가가 유년 시절에 만든 인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어느 날, 키우던 강아지를 잃은 아이는 솜뭉치와 천으로 강아지와 닮은 인형을 직접 만들어 지니기 시작했다. 인형을 잃어버리면 강아지의 기억도 사라질 것처럼 소중하게 간직했다. 몇 년이 지나 인형을 잃어버렸을 때,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강아지가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했다. 작가는 인형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어릴 때부터 믿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저에게 인형은 단순한 장난감이나 장식물이 아니라 영혼의 상징이에요. 인형은 기억과 감정, 존재를 연결하는 끈이자 매개체라는 인식이 점점 선명해지면서 소프트 조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부드럽고 가벼운 천이 실 하나로 이어져 입체가 되고, 생명력을 갖게 되는 과정이 매력적이에요. 본래 인형은 사람 형상의 장난감을 일컫는 말이지만 제 작업에서는 어떠한 형태에 국한되지 않아요. 돌멩이도, 타일 조각도 상상의 산물로 인형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소프트 조각이 기억과 감정을 지닌다는 점이니까요."

애처롭고 아름다운 상흔을 새기다

대학에서 조형예술을 전공하고 작가로 데뷔한 2018년의 작업은 힘든 기억과 감정을 마주하는 과정이었다. 김채윤 작가는 강아지 인형을 만들던 마음으로 가까운 사람들의 상처를 들여다봤다. 사람들이 자주 입는 의복에 그들의 상흔을 바느질로 새겼다. 흉터들은 애처로웠지만, 동시에 그가 살아온 삶의 흔적이었기에 감추지 않고 드러낼수록 아름다워 보였다.

성남이라는 지역을 탐구하는 일도 마찬가지로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부터 시작했다. 작가는 신흥2동과 산성동 재개발 과정을 사진과 영상으로 담으면서 버려진 것들을 수집했다. 머잖아 허물어질 집에 남겨진 타일 조각이나 문패처럼, 어쩐지 마음이 쓰이던 물건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부드러운 조각으로 형상화했다.

다음으로 찾아간 수진동과 신흥1동에서는 동네 고유의 분위기를 발견할 수 있었다. 집 앞에 저마다의 방식으로 표시한 주차 구역, 청테이프로 막아 둔 하수구, 다양한 모양의 창문 가림막, 옥상정원, 다닥다닥 붙은 건물의 옥상을 넘나드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엮여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다. 자연발생적인 그 풍경들은 성남 원도심의 정체성을 대변했지만, 도시개발 과정에서 소외되고 사라져 갔다. 작가는 그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희생된 것들이 가진 가치들을 주목했다.

우리가 공유하는 기억과 정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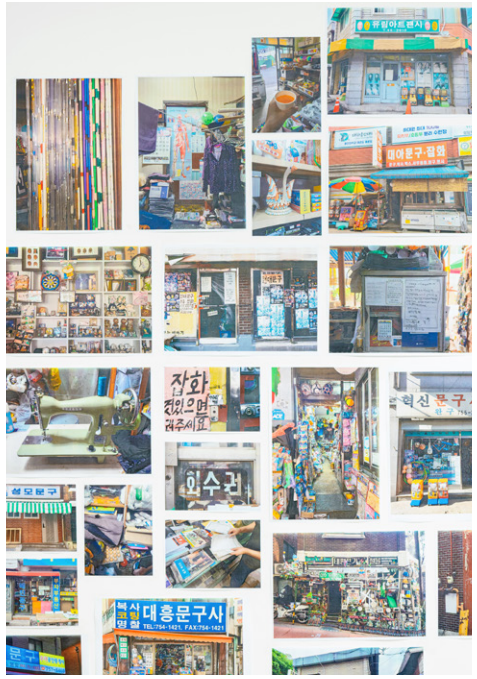
지역의 삶에 관한 기억과 감정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는 것은 김채윤 작가의 관점과 작업 방식, 소재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9년에는 성남문화재단이 중앙지하상가에 개소한 청년예술창작소에서 공공예술 프로젝트 기획자와 또래 작가들을 만났다. 팀을 이뤄 각자가 10대 시절을 보낸 지하상가의 추억을 교환하고, 장소의 의미를 찾는 작업을 진행했다. 원도심과 신도심의 경계를 떠도는 유령이 되어 재개발 현장을 배경으로 사진과 영상을 촬영했고, 다양성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던 중앙지하상가 패션을 재현했다. 이때의 경험을 토대로 김채윤 작가는 개인 작업과 공공예술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했다. 2024년에는 위례 스토리박스 '메이커스 아틀리에Maker's Atelier' 입주작가로 <나의 푹신한 수호신My Fluffy Tutelary>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16회에 걸쳐 시민과 함께한 프로그램으로, 더 이상 입고 쓰지 않는 옷이나 가방 등 버려질 원단을 활용해 자신의 수호신을 제작하는 작업이었다.

'수호신'이라는 테마의 모티프가 된 것은 창곡동 세촌마을의 명물로 위례 스토리박스에 자리한 수령 400년의 느티나무였다. 작가는 나무의 역사와 전설을 발굴해 23명의 참가자들과 공유하고, 각자 갖고 싶은 수호신을 상상해 자유로운 형태의 소프트 조각으로 형상화하도록 이끌었다. 6세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들은 개개인의 믿음과 소망이 담긴 수호신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자유로운 소통과 창작을 경험하는 한편, 완성작을 도감으로 정리해 전시로 선보이는 성취감도 공유했다.

오래된 문방구의 미래적 복원

올해 김채윤 작가는 '2025 성남예술인 예술창작활동' 공모 선정작가로 또 다른 이야기를 발굴하고 있다. 성남 원도심의 오래된 문방구를 찾아다니며 사라져 가는 기억을 복원하는 <Afterglow Chamber> 프로젝트다. 문방구에서의 경험과 감각을 기술과 예술로 재구성해 '미래 도시에 존재할 잡화점'이라는 상상의 공간을 전시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작가는 몇 년 전부터 원도심 곳곳을 다니며 문방구라는 공간의 변화를 관찰했다. 답사가 마무리되어 가는 최근에는 변화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다시 방문했을 때 이미 폐업한 모습에 돌아선 적도 여러 번. 문방구들은 모바일 지도 서비스의 업데이트 속도보다도 빠르게 사



라지고 있다.

"마을 문방구들을 답사하면서 시대의 변화를 생생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준비물을 나눠 주니 문구점을 방문할 이유가 점점 줄어드는 데다 트렌디한 무인 문구점들도 속속 생겨나고 있죠. '여기 남은 물건은 이제 다 쓰레기다'라던 어느 문방구 사장님의 씁쓸한 목소리도 기억에 남습니다. 문방구들이 사라져 가는 현실 속에서 과거 그 공간이 지녔던 의미와 경험을 어떻게 프로젝트 안으로 가져올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작가가 찾아간 문방구들은 어린 시절의 경험과 기억을 고스란히 현재로 소환해 애틋하면서도 그리운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 시절 아이는 함부로 쓸 수 없는 작고 소중한 용돈을 손에 쥐고 두근거리며 문방구에 입장했다. 온갖 흥미로운 물건이 넘치는 그곳에서 아이는 마치 4차원 세계로 빨려 들어온 듯, 나만의 보물을 찾는 모험의 시간을 보냈다. 천장 가까이 진열된 물건을 뒤지기도 하고, 낮은 진열대 아래에 쌓인 물건을 살펴보려 옷에 먼지가 묻는 줄도 모르고 바닥에 엎드렸다. 마침내 원하는 것을 찾았을 때 느꼈던 행복감과 성취감이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 있다. 김채윤 작가는 <Afterglow Chamber> 프로젝트를 통해 일상에서 잊고 지냈던 감각을 일깨우고, 주변의 작은 가치들을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를 제공하고 싶다고 했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 무언가를 탐색하고 발견하는 경험은 지금 이 시대에 더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무엇을 원하든 스마트폰 화면을 몇 번 누르는 것만으로 간단히 얻을 수 있는 시대니까요. 손으로 만지고 냄새를 맡고 눈으로 자세히 살피는 아날로그적인 탐색 과정은 색다른 감각을 일깨워 줍니다. 문방구라는 공간에서 먼지가 쌓인 곳까지 기꺼이 들여다보는 물리적인 행위는 인내심과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숨겨진 가치를 발견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요."

낯선 감각을 일깨우는 이질적 요소들

과거의 문방구가 현재에 갖는 의미, 미래에 존재할 방식을 제시하기 위해 <Afterglow Chamber> 프로젝트는 '애니매트로닉스'라는 새로운 장르와의 융합을 모색한다. 애니매트로닉스는 애니메이션과 일렉트로닉스를 합친 단어로, 로봇 기계를 이용해 모형을 움직이는 기술을 뜻한다. 김채윤 작가는 소프트 조각에 기계를 결합해 움직이거나 소리에 반응하는 방식으로 관객과 상호 작용하는 작업을 구상하고 있다. 주된 의도는 소프트 조각에 생명력과 서사를 불어넣는 것이다.

<Afterglow Chamber>의 목표 중 하나는 소프트 조각이 가진 따뜻하고 친근한 속성과 동떨어진 재료, 기법, 기술을 적극적으로 실험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애니매트로닉스 외에도 3D프린팅, 3D모델링을 시도하기 위해 최지혜 작가와 협업한다. 성남에서 함께 자란 친구이기도 한 최지혜 작가는 영화 특수효과 분야에서 일하다가 기술의 예술적 표현 가능성에 주목했고, 퇴사 후 실리콘을 주재료로 하는 조형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Afterglow Chamber>는 김채윤 작가의 소프트 조각 작업과 애니매트로닉스, 최지혜 작가의 실리콘 조각 및 3D프린팅 작업이 결합하는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성남문화재단의 2025 성남예술인 예술창작활동 공모선정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인 만큼, 작가는 공공의 지원이 새로운 예술 활동의 중요한 토대라는 소감을 밝혔다.

"재단의 지원은 지역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을 이어 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지난 3년간 회사 생활과 작업을 병행하다 보니 새로운 도전이 버거웠는데, 창작지원금 선정으로 그동안 꿈꾸던 작업을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프트 조각의 특성 때문에 작업실이 없으면 힘든 점이 많은데, 위례 스토리박스에 입주해 쾌적한 환경에서 작업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전하는 예술의 힘

김채윤 작가는 위례 스토리박스 입주작가로서 시민을 만나는 프로그램에도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해 '푹신한 수호신'에 이어 올해는 <Afterglow Chamber> 프로젝트 일부를 시민과 함께 할 계획이다.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예상치 못한 아이디어가 나올 때마다 신선한 영감을 얻게 됩니다. 예술이 특정 개인의 영역이 아닌 모두의 문화 활동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고무되고 있어요. 시민들의 참여가 작품이 되고 전시에서는 더 많은 이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프로젝트로 만들고 싶습니다."

오래된 문방구를 복원하는 작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어 갈 작업도 그 본질은 작가가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에 있다. 작가는 지역의 설화, 사라져 가는 동네, 사람들의 평범한 삶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기억과 감정을 찾아내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기록하고자 한다. 소프트 조각과 새로운 기술, 다른 작가나 시민과의 협업 등 길은 무궁무진하고 하고 싶은 것도 많다. 이야기의 원천이 거기 존재하는 한 김채윤 작가의 여정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성남아트센터, 20년의 기록

2012-2015

찬란히 빛나던 순간들

2005년 10월 14일,
성남시민의 문화향유를 위해,
세계 속의 문화도시 성남시를 만들기 위해
성남아트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
도시 곳곳에 문화예술을 꽃피우기 위해
함께 걸어온 그간의 발자취,
알차고 풍요로웠던, 아름다운 예술의 기록들을
2025년 한 해 동안 차례대로 살펴봅니다.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12-2015 성남아트센터 역대 주요 공연·전시

성남아트센터 개관 20주년을 맞아,
역대 주요 공연과 전시를 소개합니다

2012-2015 HIGHLIGHTS

2012

- 피아니스트 마르크앙드레 아믈랭 리사이틀 3.12
- 파크 콘서트 7.7, 7.21, 8.4, 8.18
- 에릭 칼 한국 특별전
- 독일현대미술전: German Now 7.6~9.2
- 파보 예르비, 힐러리 한 & 프랑크푸르트 방송 교향악단 6.10
- 한국현대미술 - 시간의 풍경들 10.9~11.25

2013

- 마크 민코프스키 & 루브르의 음악가들 3.5
- 포사이스 컴퍼니 〈헤테로토피아〉 4.10~4.14
- 로테르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야닉 네제세갱 & 장기엔 케라스 6.9
- 스페인현대미술전 <올라! 스페인> 7.2~9.1
- 킹스 컬리지 합창단, 캠브리지 8.8
- 장에프랑 바부제 피아노 리사이틀 10.19

2014

- 일 자르디노 아르모니코 3.12
- 스코티시 체임버 오케스트라, 로빈 티차티 & 마리아 조앙 피레스 2.23
- 아카펠라 그룹 〈내추럴리 7〉 4.18~4,19
- 미디어아트 <감각의 확장> 5.13~7.8
-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이르지 벨로흘라베크 & 폴 루이스 5.27
- 현대미술, 런웨이를 걷다 8.5~9.28
- 프랑스 툴루즈국립극장 초청 <1000프랑의 보상> 10.25~10.26

2015

- 프랑스 국립안무센터-발레 뒤 노르 <Tragedie_비극> 4.10~4.11
- 성남의 얼굴展-도시락樂, Rock 도시를 흔들다 건들다 6.19~7.12
- 바리톤 마티아스 괴르네 리사이틀 9.19
-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10.15~10.18
- 쾰른 서독일방송교향악단 10.22~10.23

2013

프랑스 바로크 음악의 정수

마크 민코프스키 & 루브르의 음악가들 | 3.5 | ⇦

프랑스 바로크 음악의 거장 마크 민코프스키와 그가 이끄는 루브르의 음악가들Les Musiciens Du Louvre Grenoble의 한국 초연 무대. 민코프스키가 직접 11개의 라모 오페라 중 발췌한 춤곡과 관현악곡을 모은 <상상 교향곡>, 글루크 발레 음악 <돈 주앙의 향연>은 모두 국내 무대에서 만나기 드문 곡이라는 점, 화려한 프랑스 바로크 음악의 정수를 국내 청중에게 본격적으로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더욱 귀한 무대였다.

2012

최고의 만남, 예르비와 힐러리 한

파보 예르비, 힐러리 한 & 프랑크푸르트 방송 교향악단 | 6.10 | ⇧

독일 헤센 방송국 산하 프랑크푸르트 방송교향악단은 각 시대를 대표하는 정통파 지휘자들을 영입해 고유의 개성을 키워 온 오케스트라다. 음악감독 파보 예르비는 당시 프랑크푸르트 방송교향악단 외에도 신시내티 심포니, 브레멘 도이체 캄머필, 파리 오케스트라 감독직을 종횡무진하며 러브콜을 받는 스타였다. 성남 무대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힐러리 한 협연의 멘델스존 협주곡 그리고 브루크너 8번 교향곡으로 견고한 해석을 보여 주었다.

다른 공간에서 목도하는 낯선 몸짓

포사이스 컴퍼니 〈헤테로토피아〉 | 4.10~4.14 | ⇧⇨

거장 안무가 윌리엄 포사이스가 자신의 무용단 포사이스 컴퍼니The Forsythe Company와 처음 한국을 찾았다. 포사이스의 작품이 국내에 소개된 적은 있지만, 실제 그의 내한은 <헤테로토피아>가 최초다. 철학자 미셸 푸코의 논문 <다른 공간들> 속 '낯선 공간'의 개념을 가져온 <헤테로토피아>는 객석을 막고 두 개의 무대를 설치해 회당 300명만 스탠딩 관람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신체, 음악, 언어, 공간, 관람법까지 이제껏 접하지 못한 차원의 세계를 선사했다.

불가능을 모르는 피아니스트

피아니스트 마르크앙드레 아믈랭 리사이틀 | 3.12 | ⇨

마르크앙드레 아믈랭Marc-André Hamelin은 고전에서 현대에 이르는 레퍼토리, 극한의 초절기교, 희귀 작품의 발굴과 기발한 편곡으로 극찬받아 온 피아니스트다. 2004년 첫 내한에서 관객들의 엄청난 호응을 받은 아믈랭은 2012년 성남아트센터 인터내셔널 피아니스트 시리즈로 내한, 베르크와 리스트의 소나타와 드뷔시 <영상> 2권 발췌, 자신이 직접 작곡한 12개의 단조 연습곡집으로 눈부신 비르투오시티를 선보였다.

2013

네덜란드의 숨은 강자

로테르담 필하모닉, 야닉 네제세갱 & 장기엔 케라스 | 6.9 | ⇧

세계 지휘계의 2030세대 지휘자 중 발군의 활동을 펼친 야닉 네제세갱Yannick Nézet-Séguin. 네제세갱과 함께한 로테르담 필하모닉은 유럽의 유구한 항구도시로 손꼽히는 로테르담시가 전폭 지원하는 오케스트라로, 그간 로열 콘세르트허바우 오케스트라의 명성에 가려 왔던 네덜란드 악단의 높은 수준을 보여 주었다. 2008년부터 로테르담 필과 함께한 네제세갱과 로테르담 필, 첼리스트 장기엔 케라스Jean-Guihen Queyras가 빚어낸 에너지 넘치는 무대였다.

다채롭게 빚어낸 프랑스 피아니즘

장에프랑 바부제 피아노 리사이틀 10.19 | ⇦

현대 프랑스 피아니스트 계보에서 가장 활발한 행보를 보여 온 장에프랑 바부제Jean-Efflam Bavouzet가 성남아트센터에서 최초로 한국 관객들과 만났다. 프로그램은 하이든 피아노 소나타, 프랑스 피아니즘의 다채롭고 신비한 음향을 확인할 수 있는 라벨 <밤의 가스파르>와 드뷔시 전주곡 1집, 버르토크 소나타로 꾸몄다. 바부제가 빚어낸 프랑스 피아니즘의 환상적인 스펙트럼을 확인할 수 있었던 무대였다.

2014

바로크의 정원을 거닐다

일 자르디노 아르모니코 | 3.12 | ⇧

리코더 연주자이자 지휘자인 조반니 안토니니가 이끄는 당대연주 앙상블 일 자르디노 아르모니코의 첫 내한 공연. '조화로운 정원'이라는 단체명처럼, 이들은 관객에게 바로크 음악으로 피어나는 가장 아름답고 조화로운 정원의 풍광을 선사했다. 흔히 듣기 힘들었던 옛 목관악기 샬뤼모의 음색을 감상할 수 있었던 텔레만의 <두 대의 샬뤼모를 위한 협주곡 D장조>에서는 곡 중간에 아리랑 선율을 삽입하는 재치를 보여 주기도 했다.

신예와 대가의 하모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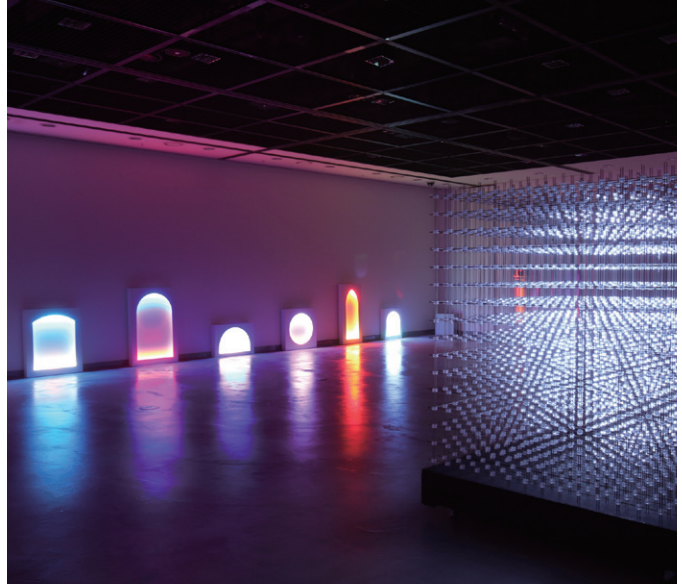
스코티시 체임버, 로빈 티차티 & 마리아 조앙 피레스 2.23 | ⇦

세계 무대에서 신예 지휘자로 각광받던 로빈 티차티가 스코틀랜드를 대표하는 문화대사 스코티시 체임버 오케스트라 그리고 피아니스트 마리아 조앙 피레스와 함께 성남 초연 무대에 섰다. 젊은 지휘자의 카리스마와 거장 피아니스트의 만남,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실력파 오케스트라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 깊은 무대였다.

기술과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

미디어아트 <감각의 확장> | 5.13~7.8 | ⇨

미디어아트의 변화와 관객과의 상호 확장성을 보여 준 전시. 일상 속 데이터들을 시각화하는 랜덤웍스(민세희, 김성훈), 작품과 관객 사이 상호 작용의 긴장감을 설계하는 에브리웨어(방현우, 허윤실),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다양한 산업 영역과 융합을 시도하는 하이브(한창민, 유선웅), 여러 국제 어워드 수상의 화려한 이력이 돋보이는 양민하, 빛을 주제로 작업하는 이상진까지, 국내 미디어아트의 대표 작가들이 예술의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했다.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감동

프랑스 툴루즈국립극장 초청 <1000프랑의 보상> | 10.25~10.26 | ⇦ ⇩

빅토르 위고의 숨겨진 희곡을 원작으로 한 <1000프랑의 보상>이 스타 연출가 로랑 펠리, 프랑스 툴루즈국립극장 오리지널 팀 무대로 국내 초연되었다. 물질만능시대의 권력과 횡포에 휴머니즘으로 맞선 서민들의 승리를 다룬 이 이야기는 성남아트센터 개관 이후 처음 선보인 해외 대작 연극이다. 빛과 그림자의 대비를 사용해 그림자나 흑백영화를 연상시키는 연출, 각 막마다 특정 색깔을 부여한 무대 등 시각적으로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인간 본연의 모습과 마주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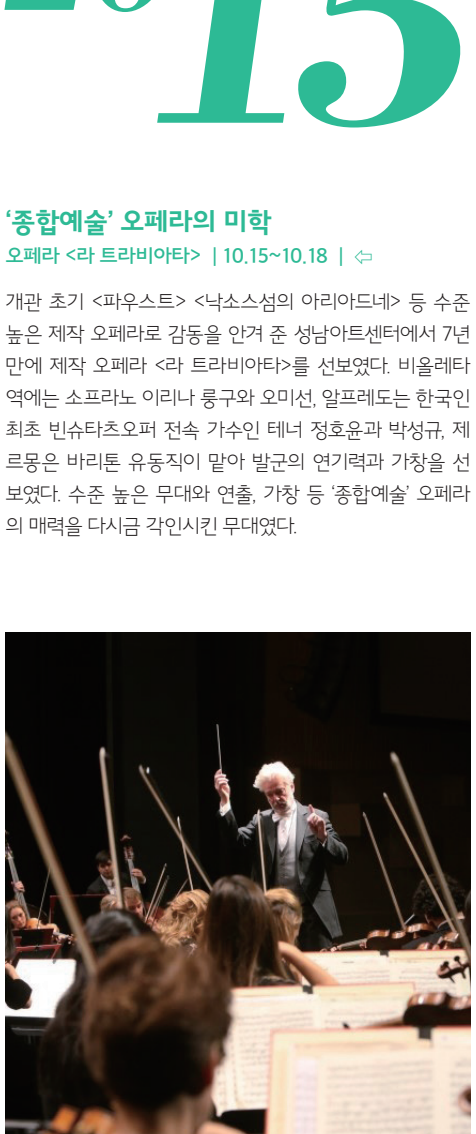
프랑스 국립안무센터-발레 뒤 노르 <비극> | 4.10~4.11 | ⇨

2012년 아비뇽 페스티벌 초연작으로, 남녀 무용수 18명이 전라 상태로 출연하는 파격으로 일찌감치 화제를 모았다. 안무가 올리비에 뒤부아(사진)가 니체 『비극의 탄생』에서 영감을 얻은 <비극Tragedie>은 다양한 성별, 나이, 체형을 지닌 무용수들이 우리 삶의 다양한 인간군상을 상징한다. 선정성이 아닌 인간성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나체를 설정했다는 뒤부아는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자연히 인간성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인류의 비극"이라고 설명했다.

가을+독일+브람스의 황금 조합

쾰른 서독일방송교향악단 | 10.22~10.23 | ⇨

독일의 명망 높은 오케스트라 중 하나인 쾰른 서독일방송교향악단의 최초 내한 무대. 유카페카 사라스테의 지휘, 특히 독일 악단이 이틀에 걸쳐 들려주는 브람스 교향곡 전곡 사이클이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모았다. 악단의 탄탄한 역량과 풍부한 표정, 전체와 세부를 조망하는 사라스테의 유연한 지휘가 돋보인 공연.



'종합예술' 오페라의 미학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 10.15~10.18 | ⇦

개관 초기 <파우스트> <낙소스섬의 아리아드네> 등 수준 높은 제작 오페라로 감동을 안겨 준 성남아트센터에서 7년 만에 제작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를 선보였다. 비올레타 역에는 소프라노 이리나 룽구와 오미선, 알프레도는 한국인 최초 빈슈타츠오퍼 전속 가수인 테너 정호윤과 박성규, 제르몽은 바리톤 유동직이 맡아 발군의 연기력과 가창을 선보였다. 수준 높은 무대와 연출, 가창 등 '종합예술' 오페라의 매력을 다시금 각인시킨 무대였다.

SMART 20th Anniversary

성남문화재단

2025
발레스타즈
BALLET STARS

2025.7.26 SAT - 27 SUN 5PM |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주최 성남문화재단 티켓 R 8만원 | S 6만원 | A 4만원 | B 2만원 예매 NOL ticket 1544-8117 문의 031-783-8000

SEONGNAM ARTS CENTER MONTHLY GUIDE

Calendar

Map

Programs

성남아트센터 가이드 | 2025년 6·7월

성남아트센터가 준비한 다양한 예술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새로운 감동으로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 보세요.

2025.06

Ⓞ 오페라하우스 Ⓒ 콘서트홀 Ⓔ 앙상블시어터
Ⓐ 성남아트리움 Ⓜ 큐브플라자 미디어홀
■ 성남문화재단 기획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1 Ⓞ THE GREATEST: 정동하×알리(17:00) Ⓔ <슈퍼윙스-초능력 곤충 대소동> (11:00, 14:00, 16:30) Ⓐ 앙상블 아띠엠 정기연주회(19:00)
2	**3**	**4** ■Ⓜ 무료 정기 상영 <라이언 일병 구하기>(14:00)	**5**	**6** Ⓞ 시네마틱 오페라 <메러디스> (15:00, 19:30) Ⓒ 테헤란밸리 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19:30) Ⓔ 가족뮤지컬 <백설공주> (11:00, 14:00, 16:30) Ⓐ 어린이 뮤지컬 <신들의 왕 제우스> (11:00, 14:00, 16:30)	**7** Ⓞ 시네마틱 오페라 <메러디스> (15:00, 19:30) Ⓒ 아우름플루트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19:00) Ⓔ가족뮤지컬 <백설공주> (11:00, 14:00, 16:30) Ⓐ어린이 뮤지컬 <신들의 왕 제우스> (11:00, 14:00, 16:30)	**8** Ⓞ 시네마틱 오페라 <메러디스> (14:30, 19:00) Ⓒ 광복 80주년 기념 K동요 해설 음악회 (19:00) Ⓔ 가족뮤지컬 <백설공주> (11:00, 14:00, 16:30)
9 ■Ⓜ 시네클럽 <수색자>(13:30)	**10**	**11** Ⓞ 성 라자로마을 창립 기념 자선음악회(19:00) Ⓒ 위더스 남성합창단 정기연주회(19:30) ■Ⓜ 무료 정기상영 <고지전>(14:00)	**12** Ⓔ 천원의 행복 릴레이 '아름다운 여정' (19:30)	**13** Ⓒ 그라시아플루트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19:30) Ⓔ 정상희 바이올린 독주회 (19:30)	**14** Ⓞ <뚜식이: 뚜식이라서 다행이야> (11:00, 14:00, 16:30) Ⓔ 기타리스트 김진세 리사이틀(16:00) Ⓐ 뮤지컬 <알사탕>(11:00, 14:00, 16:00)	**15** Ⓞ <뚜식이: 뚜식이라서 다행이야> (11:00, 14:00, 16:30) ■Ⓒ 조성진 피아노 리사이틀(15:00) Ⓔ 트리오 바론 정기연주회(17:00) Ⓐ 뮤지컬 <알사탕>(11:00, 14:00, 16:00)
16 ■Ⓜ 시네클럽 <윈드 리버>(13:30)	**17**	**18** Ⓔ 한지민 피아노 독주회(19:30) ■Ⓜ 무료 정기상영 <덩케르크>(14:00)	**19** ■Ⓒ 마티네 콘서트(11:00) Ⓔ 이나경 피아노 독주회 (19:00)	**20** Ⓒ 약속-Promise(19:30) Ⓔ 아리엘클라리넷앙상블 '눈부신 순간' (19:30)	**21** ■Ⓞ <The Magic, 조수미&위너스> (17:00) Ⓒ 송파뮤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19:00) Ⓔ 박진희 피아노 독주회(17:00)	**22** Ⓒ 호두까기인형&백조의호수 발레 페스타 (17:00) Ⓔ 아베크피아노앙상블 정기연주회(17:00)
23 ■Ⓜ 시네클럽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13:30)	**24**	**25** ■Ⓜ 무료 정기상영 <태극기 휘날리며>(14:00)	**26** Ⓒ 성남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19:30)	**27** Ⓒ 가천윈드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19:30) ■Ⓔ 연극만원 4 <고요한 미행>(19:30)	**28** Ⓞ 뮤지컬 <사랑의 하츄핑> (11:00, 14:00, 16:30) Ⓒ 성남윈드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17:00) ■Ⓔ 연극만원 4 <고요한 미행>(14:00, 18:00) ■Ⓐ <작곡가 시리즈: 모차르트 II>(17:00)	**29** Ⓞ 뮤지컬 <사랑의 하츄핑> (11:00, 14:00, 16:30) Ⓒ 베누스토 분당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9:00) ■Ⓔ 연극만원 4 <고요한 미행>(14:00)
30 ■Ⓜ 시네클럽 <시카리오> (13: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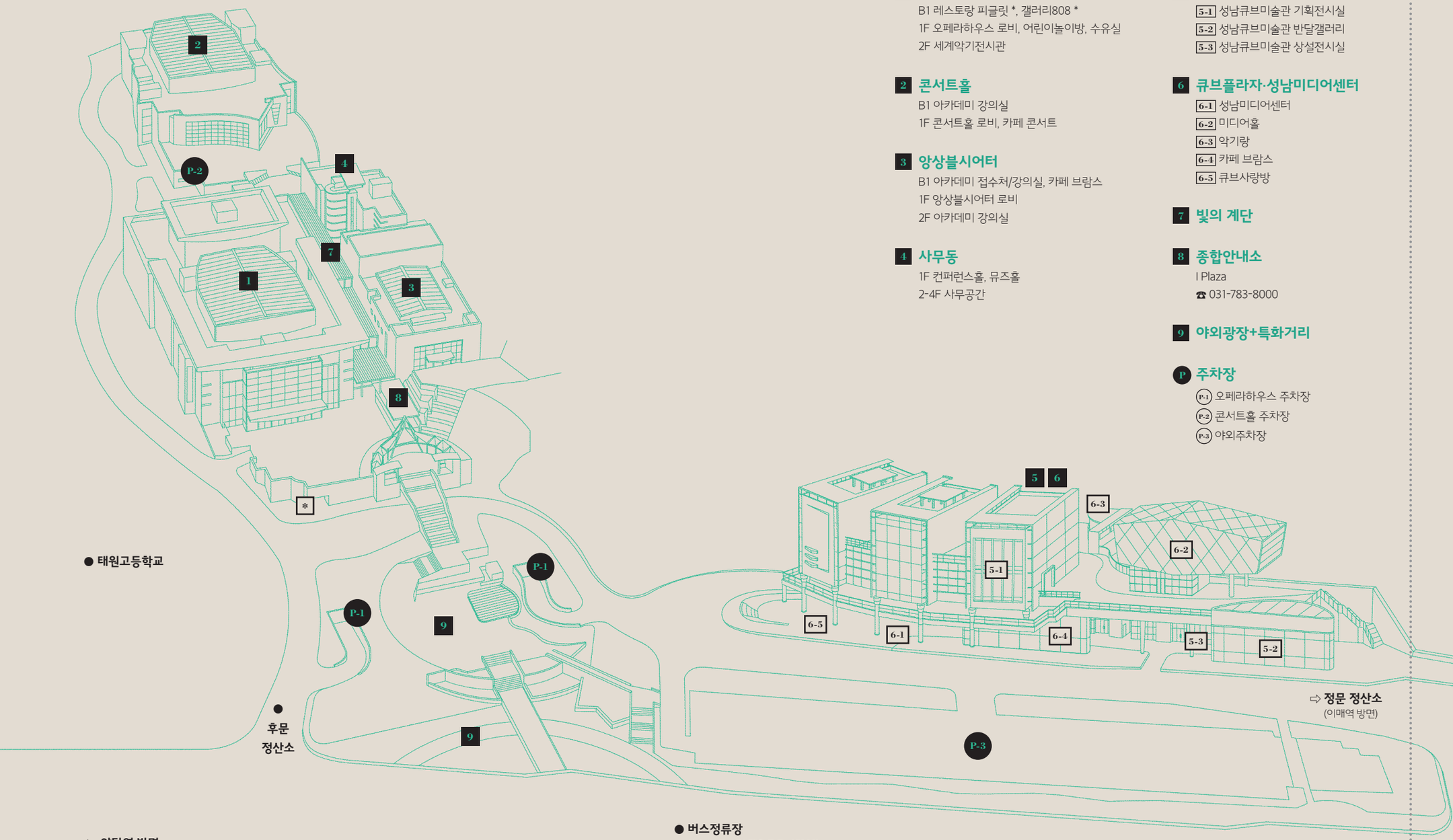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		
■ 2025소장품주제기획전 1 <비워지고, 채워지는>	2월 28일~7월 13일	상설전시실
■ 2025 성남의 얼굴전 <무해한 이야기>	4월 25일~7월 6일	기획전시실
■ 2025 성남작가조명전 II <김남표: 누가 회화를 두려워하랴>	5월 16일~7월 13일	반달갤러리
■ 2025 지역예술가교류전 <감각퍼즐>	7월 25일~9월 28일	반달갤러리 상설전시실

* 전시 관람시간 10:00-18:00 (월요일 휴관)

갤러리808	
제39회 성남문화예술제: 성남사진작가협회전	6월 1일~6월 8일
제39회 성남문화예술제: 성남미술협회전	6월 10일~6월 18일
제5회 2025 올해의 작가전	6월 20일~6월 27일
아시아미술가협회 한·일전	7월 1일~7월 6일
아시아머신소잉협회 정기전	7월 1일~7월 6일
모란현대 미술대전·성남전통 미술대전	7월 10일~7월 17일
추억의 시간	7월 20일~7월 27일
제35회 현대염색작가협회전	7월 20일~7월 27일
행 행 行 幸	7월 20일~7월 27일
왕문현 개인전	7월 30일~8월 6일

* 전시 관람시간 10:00-18:00 (월요일 휴관)

성남아트센터 공간 안내



1 오페라하우스
- B1 레스토랑 피글릿 *, 갤러리808 *
- 1F 오페라하우스 로비, 어린이놀이방, 수유실
- 2F 세계악기전시관

2 콘서트홀
- B1 아카데미 강의실
- 1F 콘서트홀 로비, 카페 콘서트

3 앙상블시어터
- B1 아카데미 접수처/강의실, 카페 브람스
- 1F 앙상블시어터 로비
- 2F 아카데미 강의실

4 사무동
- 1F 컨퍼런스홀, 뮤즈홀
- 2-4F 사무공간

5 성남큐브미술관
- 5-1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실
- 5-2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
- 5-3 성남큐브미술관 상설전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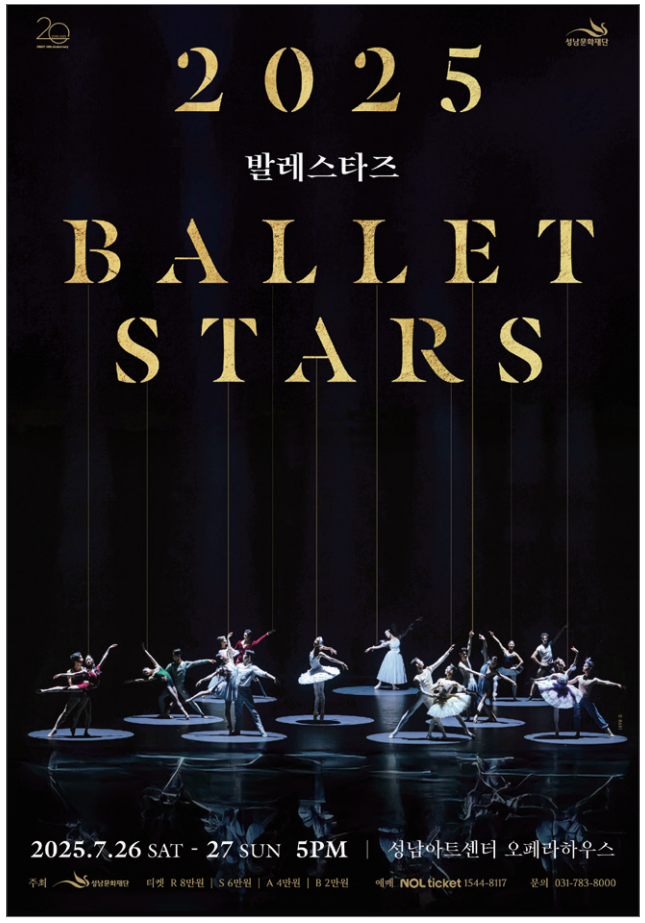
6 큐브플라자·성남미디어센터
- 6-1 성남미디어센터
- 6-2 미디어홀
- 6-3 악기랑
- 6-4 카페 브람스
- 6-5 큐브사랑방

7 빛의 계단

8 종합안내소
- I Plaza
- ☎ 031-783-8000

9 야외광장+특화거리

P 주차장
- P-1 오페라하우스 주차장
- P-2 콘서트홀 주차장
- P-3 야외주차장



발레 스타즈

<백조의 호수> <돈키호테> <지젤> <해적> 등 고전 명작 발레부터 감각적인 컨템퍼러리 작품까지, 세계 최정상 발레 스타들과 한국 발레의 라이징 스타들이 선보이는 아름다운 무대. 미국 보스턴 발레단 수석 무용수 채지영과 솔리스트 이선우, 폴란드 국립발레단 퍼스트 솔리스트 정재은과 료타 키타이, 독일 드레스덴 젬퍼오퍼발레단 단원 김수민과 솔리스트 제임스 커비 로저스, 2025 스위스 로잔 발레 콩쿠르 우승자 박윤재 등 스타 무용수들의 화려한 무대가 김광현 지휘자와 코리아쿱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이틀에 걸쳐 펼쳐진다.

장소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일시 7월 26일(토)~27일(일) 오후 5시
티켓 R 80,000원
S 60,000원
A 40,000원
B 20,000원
문의 031-783-8000

파크 콘서트 + 뮤직 페스타

성남문화재단이 매년 시민을 위해 준비하는 무료 야외 콘서트가 올해에는 초여름과 가을, 성남시 곳곳에서 펼쳐진다. 취향에 맞는 나만의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장르, 국내 정상의 뮤지션들로 라인업을 꾸렸다.

첫 순서는 푸른 잔디광장과 최고의 뮤지션들이 함께하는 야외 콘서트, 성남시를 대표하는 여름의 아이콘 <파크 콘서트>다. 6월 14일, 9월 6일, 9월 27일 총 세 차례 분당구 중앙공원 야외공연장에서 FTISLAND, LUCY 6월 14일, 10CM, 다비치 9월 6일, 김범수, HYNN(박혜원) 9월 27일을 만날 수 있다. 올해 첫선을 보이는 <뮤직 페스타>는 6월 28일(토) 오후 7시, 10월 18일(토) 오후 7시에 중원구 성남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진행된다. 6월 28일은 호소력 가득한 여성 보컬리스트의 아이콘 거미, <싱어게인 3> 준우승에 빛나는 싱어송라이터 소수빈의 무대다. 10월 18일에는 변진섭과 린의 감성 가득한 노래가 가을밤을 물들일 예정이다.

파크 콘서트
6월 14일(토) 오후 7시
중앙공원 야외공연장
뮤직 페스타
6월 28일(토) 오후 7시
성남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티켓 전석 무료
문의 031-783-8000

마티네 콘서트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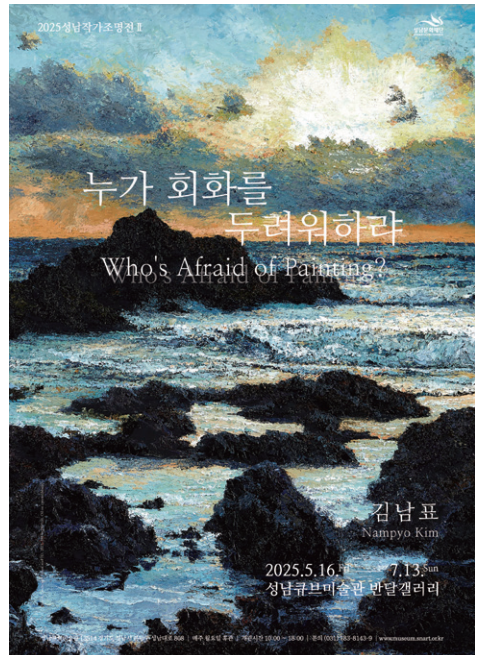
2025년의 마티네 콘서트는 오스트리아 빈을 중심으로 잘츠부르크, 린츠 등에서 태어나고 활동한 음악가들과 그들의 음악을 소개한다. 6월 19일은 한국 바로크 합창을 대표하는 지휘자 김선아와 콜레기움 보칼레 서울이 준비한 '빈 대가들의 합창 음악'이다. 슈베르트와 하이든, 모차르트 그리고 프란츠 모차르트의 음악, 바리톤 강형규의 <겨울 나그네>(바리톤과 합창을 위한 편곡) 하이라이트를 감상할 수 있다.

장소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일시 6월 19일(목) 오전 11시
티켓 전석 25,000원
문의 031-783-8000

성남아트리움 작곡가 시리즈: 모차르트 II

성남아트리움이 '작곡가 시리즈' 기획 3년 차를 맞아 올해 2회에 걸쳐 모차르트의 대표작을 선보인다. 6월 28일 두 번째 공연은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5번 '터키풍'과 교향곡 41번 '주피터'를 준비했다. 최희준 지휘자와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2019년 차이콥스키 콩쿠르 3위에 빛나는 바이올리니스트 김동현이 모차르트 음악의 아름다움을 전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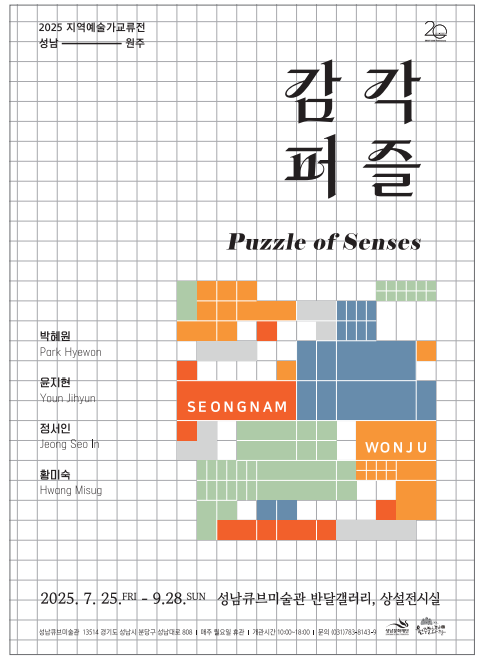
장소 성남아트리움 대극장
일시 6월 28일(토) 오후 5시
티켓 R석 35,000원
S석 25,000원
문의 031-783-8000



2025 성남작가조명전 II 김남표
<누가 회화를 두려워하랴>

올해 두 번째 성남작가조명전 <누가 회화를 두려워하랴: Who's Afraid of Painting?>은 동시대의 다변화된 미술 매체 속에서도 회화의 본질에 도달하기 위한 끊임없는 탐구를 이어 가는 중진 작가 김남표의 예술 세계를 조망한다. 작가의 신작 회화 2점을 비롯하여 2024년 프랑스 파리 시테 레지던시 입주작가 활동 당시 제작한 수채화 드로잉 연작이 처음 공개된다.

장소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
일시 5월 16일(금)~7월 13일(일) 오전 10시~오후 6시
(매주 월요일 쉼)
티켓 무료 관람
문의 031-783-8143



2025 지역예술가교류전(성남-원주)
<감각퍼즐>Puzzle of Senses

성남큐브미술관은 타 지역과의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성남 지역 예술가의 창작 영역을 확장하고, 동시대 예술가들의 유의미한 교류를 위해 '지역예술가교류전'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원주문화재단과의 교류로 <감각퍼즐>을 선보인다. 성남의 정서인(동양화)·박혜원(설치) 작가, 원주의 윤지현(서양화)·황미숙(도자공예) 작가가 독립적인 감각의 퍼즐 조각들을 지역성이라는 기반 위에 조화롭게 연결한 전시를 완성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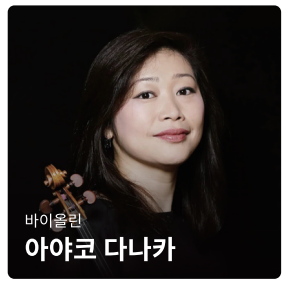
장소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 상설전시실
일시 7월 25일(금)~9월 28일(일) 오전 10시~오후 6시
(매주 월요일 쉼)
티켓 무료 관람 **문의** 031-783-8142~9

성남문화재단 SEONGNAM CULTURE FOUNDATION
SEONGNAM +

성남아트리움

손열음 & 고잉홈 프로젝트

바이올린
스베틀린 루세브


바이올린
아야코 다나카

첼로
김두민

첼로
문웅휘

바이올린
김수영

Yeol Eum 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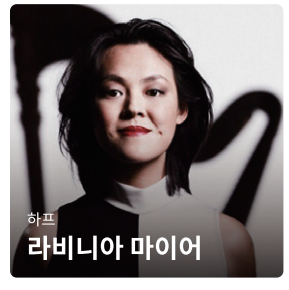
첼로
이세인

클라리넷
조인혁

플루트
조성현

비올라
헝웨이 황

Going Home Project


하프
라비니아 마이어

2025. 7. 6 SUN 3PM
성남아트리움 대극장

티켓 R석 7만원 **S석** 5만원 **시야제한석** 3만원 **예매** 인터파크 1544-8117 **문의** 031-783-8000

성 남 아 트 센 터
Seongnam Arts Center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성남아트센터 후원회는 성남아트센터에 대한 후원 활동을 통해 기관의 성장을 돕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2006년 10월 발족했습니다. 이를 위해 성남아트센터의 목적사업을 지원하는 중장기 발전기금 조성과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자체 진행하며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법인회원

은하수회원

박지향 (주)유엔젤 부회장 / (재)유엔젤보이스 이사장

탄천회원

강영귀/김연경 이노엘 대표
김진명/심정자 분당 예치과병원 원장
서창우/석남연 한국파파존스(주) 회장 / 동양연우보험대리점 대표
손경호/이동순 (주)경동 대표이사 회장
손일선/김상일 태평염전 회장 / 태평염전 사장
안봉혁/어윤경 유씨티코리아(주) 대표이사 회장
이완근/홍은희 (주)신성이엔지 회장
이재환/한정의 (주)위즈코리아 설립자 / 명예CEO
정대혁/김대원 나우(주) 대표이사 회장

철쭉회원

김부경/김모민
김상한/오다영 동서메디케어(주) 대표이사 / 동서메디케어(주) 이사
박동순/강송희 아람휴비스(주) CEO
변봉덕/이매연 (주)코맥스 대표이사 회장
우문식/조남숙 에스엔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이상우/강지선 (주)인베이드투자자문 사장 / 부동산라이프 대표
이서규/황혜숙 (주)픽셀플러스 대표이사
(사)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성남상공회의소
탄천문화포럼 100인회

개인회원

무지개회원

김경자/박성희 꼬모아트옥션 이사

탄천회원

김순자 (주)반포산업 대표이사
박철/하정진 아이파트너(주) 대표이사
여영동/이옥자 前 (주)씨너스 회장

철쭉회원

강정완/정병태 (사)한국미술협회 상임고문, 프랑스 작가협회 회화분과위원
강효주/이동연 필립강갤러리 대표, 한국문화경제연구소 소장
고옥주
김길복/이상숙 한국수도경영연구소장, 공인회계사
김동술/민인선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담 대표이사 / (주)예장디앤씨 이사
김명자/이승오 산후조리원 라크렘 대표
김문기/김인숙 (주)금화 대표이사
김복기 前 한국문화연구원장, 국사편찬위원장
김연태/이주숙 (주)비스타글로벌 대표
김영수/원종순 前 문화체육부 장관,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이사장
김중헌/정승희 (주)특수건설 대표이사 회장
김진환/이화용 법무법인 새한양 대표변호사, 前 서울지검장
김태호/김경자 前 농협중앙회 이매동지점장
남궁원/김순미 남송미술관 관장 / 예원유치원장
남선우/정정섭 국제로타리 3600지구 前 총재
마희자/조득환 서진공방 대표 / (주)조영실업 대표이사
박미경/강대식 중원구 보건소 약사 / (주)평화기업 이사
배지영/윤영민 로즈피부과 분당점 원장 / 로즈피부과 청담점 원장
백종훈/지용애 한국디지탈콘트롤(주) CEO / 송파중학교 교사
서정림 前 (재)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손의명/손외자 치과의사 / 한국화가
신동화 경기일보 상무
오풍영/이승희 신명엔지니어링 대표이사 회장
유성희/유성은 (주)인흥 대표이사 / 평택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
윤영상/박인영 (주)이글프로세스 콘트롤스 대표이사
이연옥/조상수 성남정자초등학교 교사 / 낙원중학교 교장
이경화/이정우 (사)오연문화예술원 이사장
이윤이 (주)한솔교육 대표이사
이은화/정인희 (주)언어문화원 대표이사
이임수/이화자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예가
이지은/김순건 음악인 / 하림상사 대표
이호순/김명순 세일종합기술공사 대표이사 / (사)한국발레협회 부회장
임삼규/정효정 (주)대일소재 상무 / 약사
임인선/채인호 대림대학교 스포츠재활학부 교수 /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심장내과 교수
임헌주/김윤선 AMK
장세영/김준식 한화엔엑스엠디 대표이사 / 잡코리아 CTO
장형환/임경희 N스페이스 회장 / N 갤러리 관장
전명자/김정길 서양화가 / JKKIM & Co. INC 대표
정성조/심윤경 (주)패션아일랜드 대표 / D&M Space 대표
정승립/한정복 세일기공(주) 대표
정용석/이송설 성남FM방송국 대표
정은경/박민걸 모란새로운약국 대표 / 명당한의원 한의사
정은기/박은숙 前 국립서울병원원장 / 서양화가
정인택/유경희 신한라이프 명예부사장
조남주/이규칠 미술단체〈線과 色〉前 명예회장
최병주/박인수 세무법인 청담 대표, (재)성남이로운재단 이사장
최병오/박종길 패션그룹형지 회장
최은희/연형모 안양예술고등학교 이사장
탁순희 前 대교 이사장
한병무/최정자 (주)삼화 F&F 회장
허용무/구은회 (주)가람산업 대표이사 회장
홍애자 수필가
황광석/조영순 (주)케이씨피 대표

이매회원

김선애 (재)사랑정원 이사장
박영일 (주)글로벌미트플랫폼 GMP 대표이사
서미라 21세기 미금의원 원장
윤향남 화가
전동욱 (주)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부사장
주재근 정효문화재단 대표

까치회원

김상수 (주)UBE모터스 고문
김성민 운중농원갈비 대표
김흥태 하팅코리아(주) 대표이사
목영애
박미영 단국대학교 문화예술학과 교수, (사)대한문화예술진흥협회 이사장
백선정
오미주 (사)코리아뮤직소사이어티 대표이사
우주호 성악가
이기영 (주)리크루즈 여행 대표이사
이윤이 (주)한솔교육 대표이사
정휘재 HCS 대표
조현우 지휘자
최진욱 변호사

명예회원

박명숙 前 (재)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신선희 前 (재)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무대미술가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임원진

회장 강효주 **부회장** 황광석, 김상일
이사 김연태, 박동순, 서정림, 정대혁, 최은희, 신상진, 윤영상
감사 김길복, 김문기

후원회 사무국

전화 031-783-8033 **이메일** mecenat@snart.or.kr
성남아트센터 후원회는 문화예술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분께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후원회 가입 안내 바로가기

성남아트센터 '카페 콘서트'

공연 없이도 즐기는 힐링 스팟

성남아트센터의 숨은 꿀자리를 소개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조금만 거리를 걸어도 지치는 계절인데요, 은행 다음으로 시원한(?) 피서 맛집, 시원한 음료 한 잔으로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성남아트센터 내 카페들을 2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글 **강준구** 성남문화재단 소통전략부 사진 **최재우**

먼저 성남아트센터의 콘서트홀을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꼭 마주치셨을 콘서트홀 카페! 콘서트홀 로비 '카페 콘서트'는 성남아트센터 꼭대기에 위치한 콘서트홀을 찾아오신 관객들의 소중한 오아시스입니다. 간단한 스낵류도 비치하고 있어 음료와 간식을 함께 즐기기에도 좋죠. 너무 덥지 않은 날에는 콘서트홀 앞 야외 파라솔 그늘 아래서 푸릇푸릇한 마운틴뷰를 바라보며 여유를 즐길 수 있답니다. 꼭 콘서트홀 공연 관람이 아니더라도, 맑은 날씨에 탁 트인 야외 공간에서 즐기는 커피 한 잔은 힐링 타임에 제격이지요.

올여름, 문화예술 그리고 시원한 음료와 함께하는 성남아트센터에서의 피서, 어떠신가요?

2025 지역예술가교류전
성남 ———— 원주

감각 퍼즐

Puzzle of Senses

박혜원
Park Hyewon

윤지현
Youn Jihyun

정서인
Jeong Seo In

황미숙
Hwang Misug

SEONGNAM

WONJU

2025. 7. 25.FRI - 9.28.SUN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 상설전시실

성남큐브미술관 1351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08 | 매주 월요일 휴관 | 개관시간 10:00~18:00 | 문의 (031)783-8143-9